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19호 【루계 제25993호】 주체107(2018)년 4월 29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신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신 소식을 21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보고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가 제시하였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전략적로선이 밝힌 력사적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되였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중국보도망, 인민망, 중앙TV방송, 로씨야의 따쓰통신, 신문 《쁘쏘몰스까야 쁘라우다》, 로씨야 24TV방송, 인터네트신문 렌따.루, 인터네트잡지 《렘취취》, 인터네트통신 가제따.루, 인터네트홈페지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 이란의 일나통신, 타스님통신, 파르스통신, 프레스TV방송, 네팔신문 《머저두르》,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도꾜신붕》, 《니홍게이자이신붕》, 《아사히신붕》, 《마이니찌신붕》, NHK방송, 민주꽁고신문 《라브니르》, 미국의 UPI통신, CNN방송, 영국의 BBC방송과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로스또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그루빠, 이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 및 친선협회, 도이췰란드 조선문화연구소조, 에스빠냐 바스꼬주체사상연구소조,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브라질선군정치연구쎈터 인터네트홈페지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출판보도물들도 우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0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을 일본의 《니홍게이자이신붕》, 베네수엘라의 뗄레쑤르TV방송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뽈스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탐구를 위한 국제친선발기 인터네트홈페지들이 전하였다.

한편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진행된 소식을 네팔의 인터네트잡지 《네팔 투데이》,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인터네트홈페지 《주체-네팔》과 에스빠냐 바스꼬주체사상연구소조,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이 게재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조선의 최고령도자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자주시대 해외교포운동의 개척자이시고 총련의 창건자이시며 재일동포들의 삶의 온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였던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성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조국번영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품속에 안겨 태양절을 맞이한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고 행운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사로운 4월의 봄명절을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대정치축전으로 빛내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뜻깊은 태양절경축행사에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남먼저 불러주시고 숙식조건으로부터 체류일정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헤아려주시며 친어버이사랑과 은정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저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6돐경축 중앙보고대회와 국가연회를 비롯한 중요정치행사들의 앞자리에 나설 때에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거액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또다시 보내주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였을 때에도 절세위인들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남달리 아끼고 위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믿음과 사랑에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면서 단 한순간만이라도 우러러 뵙고싶은 간절한 마음을 진정할길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저희들의 이 간절한 소망까지 헤아려주시며 중국예술단의 발레무용극 《붉은 녀성중대》공연관람에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비롯한 총련의 여러 대표단들을 모두 불러주시고 오랜 시간 공연을 함께 보아주시는 최상최대의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였습니다.

꿈결에도 뵙고싶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존경하는 리설주녀사를 한자리에 모시였던 영광의 그날 저희들은 전설적위인의 위풍당당하신 모습에서 태양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가슴벅차게 그려보며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귀중한 해외혁명동지, 한집안식솔로 정겹게 불러주시며 뜨거운 혈연의 정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갈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극진한 사랑과 보살피심속에 꿈같이 흘러간 저희들의 이번 조국방문은 위대한 승리와 사변들로 수놓아지는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한순간을 긍지높이 체험하면서 대대로 누리는 수령복, 태양복의 소중함을 다시금 심장깊이 절감한 영원히 잊을수 없는 의의깊은 나날이였습니다.

저희들은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이 끝없이 넘쳐흐르는 4월의 대축전장들마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태양의 력사는 세세년년 줄기차게 흐르게 될것이라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하였습니다.

조국체류의 나날 저희들은 조선혁명박물관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평양교원대학, 류원신발공장, 평양가방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참관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과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숭고한 세계를 가슴뜨겁게 새겨안았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이 현실로 꽃필 력사의 그날은 멀지 않았다는것을 굳게 확신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소식을 무한한 격정과 환희속에 접하면서 불과 5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위대한 병진로선의 승리를 안아오시고 주체혁명의 앞길에 광휘로운 새 시대를 펼쳐주신 희세의 위인, 만고의 영웅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진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위하여 하늘이 낸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온 세상 만민이 한결같이 우러러 흠모하고 따르는 불세출의 전설적위인이십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리키신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력사의 철리를 억척같이 새겨안고 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시간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기기 위한 애족애국의 진군을 가속화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창시자, 개척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총련을 사회주의조국과 영원히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해외혁명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력사적인 4월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을 재일조선인운동전반에 철저히 구현하여 각급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본부, 지부를 비롯한 모든 조직을 일심단결의 성벽, 애족애국의 성돌로 반석같이 다져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대로 총련 제24차 전체대회를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태여나 영광스러운 발전행로를 걸어온 총련의 본태를 찬연히 빛내이는 력사적인 계기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는 충정의 대회, 단결의 대회로 빛나게 장식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인 총공세,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차게 벌려나가는 조국인민들의 투쟁에 발걸음을 맞추어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특색있게 이바지함으로써 공화국창건 70돐경축대회장에 땟땟이 들어서겠습니다.

세계를 진감시킬 민족대사변의 해돋이가 밝아오는 이 시각 이역의 초소로 떠나는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은 오직 하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성원일동

주체107(2018)년 4월 26일

주체쇠물로 압연강재 생산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서 큰걸음을 내디딘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산소열법용광로에서 뽑은 주체쇠물로 첫 압연강재시험생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주체쇠물에 의한 압연강재가 생산됨으로써 늘어나는 철강재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며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는 물질기술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적인 제철, 제강기술을 더욱 완성하고 철생산능력을 확장하며 금속재료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경제의 철강재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함경북도당위원회와 당지도소조에서는 주체쇠물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면서 우리 식의 압연강재를 생산할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내세우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면밀하게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와 당지도소조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당위원회와 강철1직장 당조직에서는 앙양된 대중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는 한편 전투현장에 표어, 전투속보판들을 게시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였다.

산소열법용광로의 용해공들은 로운영을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로의 용해시간을 단축하고 차지당 쇠물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많이 탐구도입하였다. 용해공들과 련합기업소기술집단은 종전에 비해 무연탄소비량을 낮추면서도 주체철생산을 늘일수 있는 방법들을 받아들여 주체쇠물생산에서 새 기록을 창조하였다.

제관부문과 원료보장부문에서는 설비마다 만부하를 걸어 제관품과 원료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보장하였다.

압연강재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강철1직장의 로동계급이 혁신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였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련합기업소기술집단과의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남비가열에 필요한 가스를 우리의 연료로 대신할수 있는 미분탄가열장치를 연구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강철1직장과 공무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부족되는 부분품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면서 미분탄가열장치들을 수십일동안에 제작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강철1직장의 로동계급은 지난 시기 며칠은 실히 걸려야 하는 산소전로보수를 단 이틀동안에 해제끼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연료에 의한 남비가열체계를 짧은 기간에 확립하고 산소열법용광로에서 생산한 주체쇠물로 압연강재를 대량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강철1직장에서는 주체쇠물로 압연강재를 처음 생산하는 실정에 맞게 기술혁신 및 착상발표회를 비롯하여 로동자, 기술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나래치는 속에 새로운 탈류방법, 물조절방법을 비롯하여 압연강재생산에 이바지하는 기술혁신안들이 적극 탐구도입되였다.

직장안의 작업반들마다에 압연강재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용해작업반들에서는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압연강재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련속조피작업반원들은 불량개소들을 미리미리 찾아내어 퇴치하는 한편 련속조피기의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압연강재생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게 하였다.

주입, 혼선로작업반들에서는 미분탄가열장치조작을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진행하여 가열속도를 높이였다. 특히 원료작업반을 비롯한 보장부문 작업반들에서는 용해공들과 한전호에선 심정으로 설비관리, 기대관리를 책임적으로 짜고들어 압연강재생산에서 한몫하였다.

산소분리기분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압연강재생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도안의 수많은 단위들과 청진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서 새로운 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해나가고있는 김철의 로동계급을 물심량면으로 힘있게 지원하였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서 련일 혁신 평양시려단에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 떨쳐나선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날에날마다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평양시려단에서는 지난 3월 20일까지 11만여㎥의 지대성토와 근 1000m의 도로로반형성, 천수백m의 물길공사와 전기, 체신구조물공사를 끝내였다. 그리고 4월말현재 2만㎥의 건설대상기초콩크리트치기, 골조공사를 완전히 끝내고 지대정리와 수로뚝돌쌓기, 나무심기를 전부 결속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군민이 힘을 합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최단기간내에 완공하고 삼지연군꾸리기와 단천발전소건설, 황해남도물길 2단계 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며 살림집건설에 계속 힘을 넣어야 합니다.》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서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우선 시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또한 강력한 건설력량을 현지에 지체없이 파견하고 지원사업도 통이 크게 벌려나갔다.

려단지휘부에서는 시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속에 지난 1월초 가설건물들을 전개하면서 즉시 전투에 진입하였다.

시당위원회 책임일군은 여러차례나 건설장을 찾아가 전투현장을 일일이 밟아보며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평양시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서 전국의 앞장에 설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을 심장깊이 자각하고 수도사람들의 본때를 보이도록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였다. 이와 함께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 건설속도를 부단히 높이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책임일군의 이신작칙에 고무된 시당위원회와 구역, 군당위원회일군들은 건설현장에 달려나가 정치사업과 지원사업을 활발히 벌려 전투장의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다.

착공의 첫 삽을 박은 때로부터 평양시려단전투장에서는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백열전이 벌어졌다.

1단계 사회주의경쟁에서는 동대원구역과 보통강구역, 선교구역과 사동구역, 모란봉구역과 룡성구역이 앞장에 섰다.

동대원구역 책임일군들은 능력이 있고 건설경험이 풍부한 일군들을 현장에 파견하고 제기되는 로력과 설비, 자재를 보장해주어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이에 고무된 돌격대원들은 도로로반형성을 위한 흔석, 박토수송에서 다른 단위보다 몇배나 되는 량을 운반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또한 건물기초공사와 골조공사, 물길공사와 지대정리, 나무심기도 시적으로 제일먼저 끝내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보통강구역에서는 구역의 력량을 건설에 집중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구역에서는 튼전기재를 제때에 보장해주어 작업의 기계화비중을 훨씬 높이는 한편 휘틀제작과 철근가공을 선행시켜 다층건물골조공사를 남먼저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선교구역과 사동구역, 모란봉구역과 룡성구역의 일군들도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웨치며 대오의 앞장에서 돌격대원들을 이끌어 맡겨진 전투과제를 기한전에 끝내고 다른 단위들도 적극 도와주는 고상한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였다. 락랑구역과 력포구역의 책임일군들은 현장을 타고앉아 전투조직과 지휘를 페기있게 벌려 1단계공사를 제기일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굴의 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에 떠받들려 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특파기자 최수복

높은 전력생산실적 기록 순천화력발전소에서

순천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지난 1.4분기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기세로 뜻깊은 4월에도 매일 평균 계획보다 수십만kWh의 전력을 증산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불비한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여 전력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발전소당조직에서는 높은 전력생산성과를 거두기 위한 작전밑에 대고조진군의 북소리를 힘차게 울리고있다. 기본생산단위들에 위치를 정한 이곳 당, 행정일군들은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면서 걸린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가고있다.

타빈직장과 열생산직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순회점검체계를 엄격히 확립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여 날마다 호기당 출력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지난 3월에 타빈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1호발전기계통의 임풀스관이 손상되였을 때 용접과 조절변해체 및 조립전투를 불과 한시간동안에 다그쳐 끝냄으로써 설비의 정상가동을 보장하였다. 열생산직장에서도 회전설비들과 미분화계통에 대한 기술관리를 잘하여 연료절약량에서 최고기록을 세우고 설비들의 가동률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8배로 높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전기직장에서는 3호보이라의 미분탄급탄기들과 1호발전기의 불량한 개소들을 미연에 방지하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다.

창조의 불길은 보장단위들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전기타빈보수직장의 로동자들은 2호발전기의 전동기보수과제가 제기되자 12시간동안 긴장한 전투를 벌려 운영호기의 만가동을 원만히 보장하였다. 하차직장의 로동자들도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불과 8시간만에 수백톤의 석탄을 저탄장에 옮기는 혁신을 일으켰다.

공무직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회전자와 하차기날개를 비롯한 중요부분품들을 최단기간에 가공하였으며 자동화직장과 자력갱생직장, 운탄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전력생산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설비들의 정상보수에 힘을 넣으면서 불량개소들을 제때에 찾아내여 생산실적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지원철

강철전선을 적극 지원 평안북도에서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1.4분기 과철수집계획을 초과수행한 기세로 강철전선을 계속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나라가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낄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모든 시, 군들에서 과철수집사업을 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금속공장들에 보내주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도급기관, 공장, 기업소들과 시, 군들에서 군중적운동으로 과철을 수집하여 금속공장들에 보내주었다.

도에서는 첫 전투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도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시, 군들에 과철수집과제를 명백히 주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높아진 과철수집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도적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배나 더 많은 과철을 수집하여 1.4분기 과철수집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과철수집사업에서는 정주시가 모범을 보이였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에서는 과철수집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계획보다 많은 과철을 수집하여 금속공장에 보내주었다.

신의주시와 피현군, 염주군, 곽산군을 비롯한 다른 시, 군들에서도 과철수집사업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12월5일청년광산, 신의주마이싱공장, 도송배전부, 수풍발전소를 비롯한 많은 단위들이 1.4분기 과철수집계획을 초과수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1.4분기 과철수집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더 많은 과철을 강철전선에 보내줄 열의로 가슴을 끓이며 계속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이 땅에 끝없이 흐르는 사랑의 력사

태양조선, 태양민족의 존엄과 기상이 더욱 높이 떨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전세계의 이목을 또다시 집중시킨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이는 우리 나라를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고 우리 인민의 자주적리상과 행복을 꽃피워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계기로 되였다.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켜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드팀없는 의지를 뜨겁게 새겨안고있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높이 드시고 인민사랑의 위대한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반만년민족사에 류례없는 번영기가 펼쳐지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더 높이 발양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 땅에 펼쳐지고있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화폭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입니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구현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바로 우리 인민의 삶의 보금자리인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

우리 당은 이민위천의 한생으로 인민을 키우시고 조선을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사상과 업적을 귀감으로 삼고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할것이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갈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가슴을 세차게 울려준다.

돌이켜보면 인민의 세기적인 숙망을 안으시고 한평생을 바치시여 이 땅우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시고 꽃피워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일찌기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는 나날에 유격구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여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수립하시였고 전후 재더미만 남은 페허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안으시고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책동을 단호히 쳐갈기시며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신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따라 혁명해온 나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물려주신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 식 사회주의가 력사에 류례없는 시련의 폭풍우속에서도 어떻게 변함없이 인민을 품어안아 행복의 상상봉에 올려세우는가를,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펴나는 우리의 사회주의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잊을수 없는 나날이였다.

민족대국상을 당한 형언할수 없는 상실의 아픔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위해 더 마음을 쓰시였다.

12월의 그 나날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취해주신 조치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인민사랑의 옹심깊은 세계에 대하여 누구나 절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야 한다는 숭고한 뜻으로 언제나 심장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군대와 인민들앞에서 하신 첫 연설에서도 그이께서는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자신의 결심을 뜨겁게 피력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인민의 기쁨은 자신의 기쁨이고 인민의 행복은 곧 자신의 행복이다.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공장을 돌아보시며 1년 365일이 이런 날들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그리도 만족해하신분, 만선의 배고동소리 울리는 포구에 넘쳐나는 물고기사태를 바라보시며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부모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눈앞에 선히 그려진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신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인민의 행복과 기쁨에서 혁명하는 멋, 가장 큰 희열을 느끼는분이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하나의 창조물이 일떠설 때마다 소박하고 근면하며 혁명적인 우리 인민들에게 무엇을 더 해주겠는가 하는 생각이 자신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며 더 훌륭한것을 더 많이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안겨줄 결심을 굳히시는것이다.

그 사회를 알려면 아이들을 보라는 말이 있다. 꾸밈이 없는 아이들의 모습에 사회의 모습이 비끼기때문이다.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땅우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을 찾으신적은 또 얼마인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을 웅변적으로 말하여주는 사랑의 궁전들은 오늘도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고 그들을 위하여 천만금도 아낌없이 기울이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소리높이 전하고있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리 인민을 이 세상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인민에게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니시고 가시는 곳마다 인민이 대대손손 락을 누려갈 사회주의락원을 펼쳐주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쳐오신 심혈과 로고를 무슨 말로 다 전할수 있겠는가.

창전거리건설이 한창일 때 한 외국인은 완공기일에 대하여 듣고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놀라와하였다. 하지만 빠른 시일에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거리가 솟아나고 거기에 입사한 사람들도 평범한 인민들이라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 그의 놀라움은 더욱 컸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때로는 비내리는 진창길을 걸으시고 때로는 모래바람을 손으로 막으시며 설계도면도 그려주신 우리 원수님의 헌신에서, 살림집에 놓을 가구의 자리며 접속구의 개수까지 헤아려주신 다심한 은정에서 세상사람들은 당과 국가의 모든 시책이 인민을 위하여 실시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진정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21세기 사회주의문화농촌의 본보기로 자랑높은 장천의 별천지, 참혹한 대재난이 휩쓴 라선시와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에 펼쳐진 행복의 보금자리들…

이 땅에 끝없이 펼쳐지는 사랑의 화폭에서 인민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시고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세상 으뜸인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굽을 적시는 우리 인민이다.

인민들이 리용하는 무궤도전차를 더 많이, 더 좋게, 더 훌륭하게 만드는것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옹호고수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태를 지키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시며 깊은 밤 새형의 무궤도전차시운전길에 계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같으신분이 이 세상 또 어디에 있으랴.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주시려 우리 원수님께서 걸고걸으시는 이런 인민사랑의 자욱우에 《113건의 형성안》, 《하루반과 일년내내》, 《새 과학자주택지구의 첫 김장철풍경》과 같은 감동깊은 혁명일화들도 태여날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치신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화폭들에서 우리는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승승장구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찬란한 래일을 그려보고있다.

인민을 위한것, 인민적인것이 가장 중차대한것으로 최우선시되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정이 끝없이 흘러넘치는 이 땅, 정치와 군사, 경제도 인민을 위한것이고 문화도 인민을 위한것이며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이 땅이 너무도 소중하기에 우리 인민 누구나 삶의 터전이고 행복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확신하시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과학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도 과학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만군민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기에 사회주의만세소리는 이 땅우에 더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백 영 미

인민의 행복을 위해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쉬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고 그 길에서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이 내 조국의 하루하루에 소중히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며칠앞둔 주체69(1980)년 10월 5일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른아침부터 집무를 보시다가 곧바로 중요대상건설장에 나가시여 건설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고 이어 모란봉경기장(당시)을 찾으시여 당창건 35돐과 당 제6차대회를 경축하는 집단체조관통훈련을 보아주시였다. 그길로 평양제2백화점과 보통강기슭에 새로 건설한 어느 한 기관의 청사를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다시금 창광거리로 향하시였다. 어느덧 어둠이 깃들고 거리의 가로등들에는 환하게 불이 켜지기 시작하였다.

창광거리에 들어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거리가 굉장히 넓어지고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만족해하시면서 30층살림집에 올라가보자고 하시였다. 30층의 살림집에 들리시여 방들을 돌아보시고 로대로 나가시여 불야경을 이룬 수도의 밤경치를 부감하시면서 수도건설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집무실로 돌아오신 때는 밤이 퍼그나 깊어서였다.

온 하루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 그이께서 잠시라도 쉬시기를 바라는 일군들의 마음은 간절하였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기된 문제들을 처리하고 문건들을 보아주시느라 저녁식사마저 번지시였다. 한 일군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라도 잠시 휴식을 하셔야 하겠다고 절절히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는 일군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자신에게는 사업이 곧 휴식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다시금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청사로 돌아오신것은 자정이 지나서였지만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창광거리와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식사도 휴식도 다 잊으신채 헌신하시는 그이께 일군들은 다문 한시간이라도 쉬셔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리였다.

하지만 그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공기를 마시면 머리가 거뜬해지고 온몸에 용기가 솟습니다라고 하시며 이번에는 2.8문화회관(당시)에 가보자고 하시였다.

그이께서 회관을 돌아보고나서였을 때는 어느덧 수도의 살림집들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하던 새벽이였다. 수도의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열정에 넘치신 음성으로 이제 얼마 안있어 날이 밝겠는데 시내나 한바퀴 돌아보자고 하시며 또다시 차에 오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언제면 쉬시겠는지, 인민의 그 간절한 소원이 언제면 이루어지겠는지 일군들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하였다.

그날 일군들과 함께 시내를 돌아보시면서 당대회를 맞는 수도를 경축일색으로 환하게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곧바로 집무실로 향하시였다.

력사에는 인민을 위한다는 정치가들이 많았지만 우리 장군님처럼 잠시의 휴식도 없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친 령도자가 과연 언제 있었던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자랑찬 로정에도, 날로 꽃펴나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에도 어버이장군님의 불면불휴의 헌신의 세계가 어려있음을 우리 어찌 천만년세월이 흐른들 잊을수 있으랴.

위대한 헌신으로 수놓아진 우리 장군님의 하루하루, 끊임없이 이어가신 이런 날과 달들이 모여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한평생이 되고 그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의 한평생과 더불어 인민의 락원이 꽃펴났다.

본사기자

헌신적복무의 세계

우리 식 사회주의의 초석—일심단결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충정다해 받드는 우리의 일심단결,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위력인 일심단결이야말로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상징이며 일심단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위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단결의 위력으로 이 땅에 인민이 주인된 나라를 일떠세웠고 년대를 이어 승리를 떨치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여왔다. 시련의 나날에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사회주의성새를 억척같이 다지였다.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재부인 우리의 일심단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과 한마음한뜻이 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웠으며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기적과 변혁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을 굳게 믿으시고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는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시면 인민은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열풍으로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는것이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해에 진행된 충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서 승리의 포성을 련일 울릴수 있은것도, 만리마의 기상으로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거창한 변혁을 이룩하여 세인을 놀래울수 있은것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굳게 믿으시고 인민은 그이를 충정의 일편단심으로 받들어온 일심일체의 위력이 있었기때문이다.

강위력한 우리의 일심단결은 과연 무엇으로 하여 그토록 진할줄 모르는 위력을 발휘하는것인가.

우리 잠시 어느 한 나라의 신문에 실리였던 글을 보자.

《조선의 첫째가는 위력은 일심단결이다.

일심단결의 위력의 밑바탕에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인민에 대한 무한하고도 헌신적인 사랑이 있다. 그 뜨거운 사랑과 정은 천만군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게 하고있으며 단결의 위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발휘되게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으시고 수령님들의 사랑까지 합쳐 인민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우리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무한대한 사랑과 믿음, 바로 이것이 천만군민의 일편단심을 낳는 근본원천이다.

몇해전 10월의 하늘가에 메아리친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신에 넘치신 음성이 오늘도 우리의 귀전에 메아리쳐온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위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

…

근로하는 인민이 영원하듯이 인민을 위하여, 인민과 함께 투쟁하는데 영원한 정의와 승리가 있습니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사랑과 정으로 일심단결의 만년성새를 억척같이 다져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이 땅에는 만사람을 울리는 인민사랑의 화폭들이 끝없이 펼쳐지고있다.

천만군민을 대해같은 품에 안아 극진히 보살펴주시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회주의조국의 동음으로 안고 사시며 만복을 꽃피워주실 의지를 더욱 가다듬으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그이와 맺은 정을 피줄처럼 간직하고 그이따라 나갈 때 백전백승한다는 진리를 뼈에 새겨안은 인민이기에 누구나 당중앙위원회 뜨락에 피줄을 이어놓고 원수님의 구상을 실현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백옥같은 충정을 바쳐가고있는것이다.

그 누구도 가질수 없고 흉내낼수도 없는 우리의 일심단결,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가 영원히 승리만을 떨쳐나갈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다.

세상사람들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기세충천하여 일떠선 우리 인민이 어떻게 이 땅에 만복이 넘쳐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가를 감동깊이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는 길에서

로동자합숙을 찾으신 날에

주체103(2014)년 4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이 완공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현지에 나오시였다.

처녀들이 좋아하는 연분홍색과 미색이 조화를 이룬 복도며 매 층의 홀마다에 놓여있는 액정텔레비존, 정갈하게 꾸려진 호실들, 치료실, 도서실… 그야말로 로동자호텔, 로동자궁전이였다.

공장로동계급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에는 끝이 없었다.

어느 한 호실에 들어서시여 전실에 걸려있는 거울을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처녀들이 외출을 하거나 총각들을 만나러 갈 때 옷맵시를 보면서 좋아하겠다고 환하게 웃으시며 방안의 벽장을 몸소 열어보시였다.

벽장은 세칸이였는데 아래칸에는 이불을 넣을수 있게 되여있었고 웃칸은 옷을 걸어놓는 칸이였다. 옷을 걸어놓는 칸의 길이를 가늠해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길이가 짧아 치마저고리를 걸어놓으면 접힐것이라고 무척 아쉬워하시였다.

세상에 돌도 없는 로동자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고도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다심한 정을 기울이시는 우리 원수님,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런 하늘같은 은정과 사려깊은 보살피심이 어리여 손색없이 마련된 행복의 보금자리, 로동자합숙인것이다.

다심한 사랑은 학생들의 책상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된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찾으시였던 몇해전 10월 어느날이였다.

뜻깊은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자들의 자녀들이 공부할 학교들에도 사랑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초급중학교의 교실들에 놓은 책상을 보아주실 때였다.

책상은 옷판을 열고 그안에 학생들이 교과서와 생활용품들을 넣게 되여있었다.

책상을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원주필을 요구하시였다.

모두가 영문을 몰라 마주보고 있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주필을 책상우에 놓고 옷판을 여시였다.

순간 원주필이 굴러떨어졌다.

아이들을 직접 키우는 교원들도, 전문설계가들도 생각지 못한 부족점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번에 찾아내신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난세찬 아이들이 연필이나 원주필을 바닥에 떨구지 않게 책상에 턱이나 홈을 만들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홈은 어떻게 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아이들이 리용하는 크지 않은 책상, 바로 여기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런 옹심깊은 사랑의 손길이 닿아있다.

제일 강조하신 문제

세해전 2월 어느날 몸소 비행기를 타시고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을 부감하시며 공사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다음날에는 몸소 건설현장을 찾으시였다.

미래과학자거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신 문제는 봉사망형성이였다.

한 일군으로부터 미래과학자거리의 봉사망형성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는 어디까지나 주택지구이므로 리발소, 미용원, 세탁소, 옷수리소, 구두수리소같은 편의봉사시설들과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기관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주택지구에는 목욕탕과 약국이 꼭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에 떠받들려 일떠서는 거리, 미래과학자거리는 명실공히 과학자들을 위한 주택지구이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여도 주택지구는 멋진 봉사망에 비해볼 때 편의봉사시설들이 상세하게 계획되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지휘부와 해당 부문에서 미래과학자거리 봉사망배치계획을 검토해보고 바로잡을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언제나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런 숭고한 뜻에 받들려 미래과학자거리는 각종 봉사망들과 편의시설들, 휴식터들이 조화롭게 들어앉은 멋쟁이거리로 일떠서게 되였다.

오 영 심

김 영 남 동 지 가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프레토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씨릴 라마포싸 각하

나는 귀국의 국경절인 자유의 날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7(2018)년 4월 27일 평 양

프리타운

시에라레온공화국 대통령

쥴리우스 마아다 비오각하

나는 시에라레온독립 57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날을 따라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귀국정부와 인민이 당신의 령도밑에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7(2018)년 4월 27일 평 양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의 기본정신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전략적로선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당의 새로운 혁명적로선과 방침을 현실로 전변시키자면 무엇보다도 이번 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것은 아무리 욕망이 크고 열성이 높아도 당의 구상과 의도를 잘 모르면 당정책을 완벽하게 철저히 집행해나갈수 없기때문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천명하신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을 심장깊이 새기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 위훈의 창조자가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바쳐오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력사적사명입니다.》

그러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은 무엇인가.

—기본정신은 우선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를 더욱 가속화하자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최종목표는 우리 나라를 인민의 자주적리상과 행복이 꽃펴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건설하는것이다. 우리 혁명은 력사의 닻을 올린 첫날부터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혁명세력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최악의 역경과 도전들을 과감히 뚫고 줄기차게 전진하여왔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의 첫 시기에 우리 당은 미제의 핵공갈위협과 새 전쟁도발책동이 날로 가증되는 조건에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이 세상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철벽의 요새로 만들고 우리 인민과 후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가장 적극적이고도 혁명적인 로선을 제시하고 천만군민을 조직동원하여 완강한 공격전을 벌리였다.

부강조국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은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분수령으로 하여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있다.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는 최강의 국가방위력이 다져진것과 함께 자립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휘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고 나라의 전반적경제가 상승궤도에 들어섬으로써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이제는 우리 국가의 지위가 완전히 달라졌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수 있는 결정적조건이 마련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은 이룩한 성과가 클수록 보다 빠른 속도로 다그치며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할것을 요구한다. 자주의 성새, 사회주의강경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어떻게 하나 압살해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흉심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원쑤들의 최후발악앞에서 전진속도를 늦추는것은 후퇴를 의미하며 후퇴는 패배로 이어지게 된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에는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를 가속화함으로써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려는 투철한 공격정신이 맥박치고있다. 위대한 당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맞이한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더욱 큰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기본정신은 또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나가자는것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력갱생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이다. 이것은 식민지약소국으로부터 짧은 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되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살인적인 제재봉쇄속에서도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로 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자력갱생력사가 실증해주는 철리이다. 시대는 전진하고 혁명투쟁의 조건과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된다. 시대적환경은 달라질수 있어도 자기 나라 혁명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는 달라질수 없다.

자력갱생은 우리 혁명의 전력사적기간에 언제나 철칙으로 되여왔지만 현시기 더욱 중차대한 전략적문제로 나서고있다. 이번에 우리 당이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제시한것은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도달시키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게 된 기초우에서 경제발전에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략적결단이며 인류의 공통된 념원과 지향에 부합되게 혁무기없는 세계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평화애호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한 력사적결정이다.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에는 준엄한 병진의 길에서 그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무진막강한 주체적힘에 대한 확신이 차넘치고있으며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오직 자력갱생, 견인불발함으로써 훌륭한 미래를 앞당겨오려는 투철한 자주적립장이 일관하게 관통되여있다.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발표되자마자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으며 국제무대를 뒤흔들고있다. 그러나 궁지에 빠진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당의 중대결정의 근원을 외곡하는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현실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주체적력량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과학교육사업발전문제를 토의한것이 얼마나 현명한것인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남에게 의존하여서는 절대로 경제를 발전시킬수 없다. 정세가 어떻게 변한다 해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혁명을 전진시키는 길은 오직 하나 자력자강에 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을 뼈에 새기고 당의 새로운 혁명적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매진함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김 성 남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단천발전소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당의 구상과 결심은 곧 우리의 실천

현장지휘부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기문제를 풀자면 단천발전소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지금 단천전역에서는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가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대규모의 발전소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단천발전소 1단계공사의 추진정형과 그 전망을 놓고 현장지휘부일군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단천발전소건설에서 1단계공사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은 무엇인가.

책임자 심상모: 대규모의 단천발전소건설은 북방의 험준한 산발들을 꿰지르며 수백km의 물길굴을 형성하고 장진강과 허천강, 가림천을 비롯한 강하천들의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기본언제들과 발전소들을 일떠세우는 대자연개조전투이다. 총 수백m의 고락차를 얻어 수십만kW의 발전능력을 조성하게 되는 우리 나라 수력발전소건설력사상 가장 규모가 큰 이 발전소건설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1단계공사는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설계도따라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가는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떨치며 단천발전소를 나라의 대동력기지로 거창하게 일떠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단계공사목표인 수십km의 1호물길굴, 5호발전소와 언제, 1호발전소와 6호발전소건설 등이 일정계획대로 추진되면 단천발전소를 하루빨리 훌륭히 완공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기자: 현재 진행되고있는 1단계공사실태에 대하여 알고 싶다.

참모장 권영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높이 받들고 단천발전소건설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만리마시대의 영웅신화를 창조해나가고있다.

많은 단위들에서 지난해에만도 총 1만 5 000여m의 굴진을 진행하고 8개의 작업갱공사가 결속되여 기본물길굴공사에 진입함으로써 1단계공사를 제기일에 끝낼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밑에 함경남도안의 1만여명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달동안에 17km의 도로를 새로 건설하고 80km구간의 도로확장공사와 다리개건공사를 와닥닥 해제끼였다.

희천돌격대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값높은 평가를 받아안은 조선인민군 리영식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불리한 지형조건에서도 비상한 공격속도로 1호발전소 발전기실초굴착과 정면옹벽공사, 여수로공사, 조압수조의 7개 도갱굴진을 전부 끝내는 자랑을 떨치였다. 착공식이후 여덟달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1호발전소 총공사량의 40%를 해제낀 이들은 올해 정초부터 조압수조와 기본물길굴공사를 동시에 다그침으로써 맡은 대상공사를 기한전에 끝낼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5호발전소언제와 주요구간의 물길굴공사에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가배수로공사를 와닥닥 끝낸데 이어 기본물길굴공사와 언제콩크리트치기를 본격적인 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공사초기보다 작업갱수가 1.5배이상으로 늘어난데 이어 조선인민군 백일남소속부대와 대홍지도국려단, 북성려단과 자강도려단, 라선시려단과 황해남도물길건설돌격대 등에서 20개의 작업갱공사를 완성하고 기본물길굴공사에 진입하여 굴진속도를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평양시려단과 함경북도려단, 금강지도국려단, 청천강-평남관개물길건설 함경남도려단, 속도전청년돌격대에서도 작업갱공사와 발전소건설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여 올해 1.4분기까지 전체 공사장적으로 40만㎥이상의 굴착과 3만여㎥의 콩크리트치기, 2만 5 000m이상의 작업갱 및 기본물길굴도갱굴진과제가 수행되는 자랑찬 로력적위훈이 창조되였다.

기자: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의 공사전망에 대해서도 설명해주면 좋겠다.

부책임자 윤일: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우리 현장지휘부에서는 뜻깊은 올해에 기본물길굴도갱굴진과 언제 및 발전기실건설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당면하여 몇달안으로 수십개의 작업갱공사를 전부 끝내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도입하며 갱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부단히 높여 기본물길굴의 전반적인 도갱굴진실적을 부쩍 끌어올리겠다.

특히 세멘트와 강재, 목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들과 각종 설비보장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여러개의 언제와 발전기실건설을 위한 기초굴착과 콩크리트치기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일정계획대로 다그쳐 끝내겠다.

책임자 심상모: 우리 일군들은 당정책의 운명이 자신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자각하고 단천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한몸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워나가겠다.

당의 구상과 결심은 곧 우리의 실천이다. 단천전역의 전체 건설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단천발전소 1단계공사를 제기일에 무조건 완공함으로써 당에 승리의 보고, 충정의 보고를 삼가 올리겠다.

견인불발의 의지로

조선인민군 백일남소속부대 리은철소속구분대 막장에서

현지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언제나 우리 혁명의 제일선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단숨에의 투쟁기풍과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

여기는 백일남소속부대 리은철소속구분대의 작업갱막장이다. 지금 부대적으로 제일 긴 보조작업갱인 38-2갱의 굴진작업장에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다.

경사급한 수천척막장의 410m계선에서의 굴진전투는 신념과 의지의 대결장이다.

방금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투명령을 결사관철하자는 신념의 구호를 막장안이 떠나갈듯 웨치며 작업에 뛰여든 구분대전투원들의 불굴의 기상으로 막장은 격전장처럼 부글부글 끓어번진다.

《뚜루룩, 뚜루룩》, 《쏴-쏴》, 《윙윙》

착암기와 압축기, 권양기와 양수기들의 드높은 동음이 그칠줄 모르는 막장안에서 윤기준동무를 비롯한 2교대전투원들이 억척같이 착암기를 틀어쥐고 작업을 해댄다. 육중한 착암기의 정대가 쉴새없이 돌아간다.

천연암반에 구멍을 내고있는 굴진공들, 발파준비작업에 여념이 없는 전투원들, 이에 뒤질세라 2m, 4m짜리 레루를 민첩하게 엇바꾸어 전진시키며 최근에 받아들인 버럭상차공법으로 광차마다에 버럭무지를 만적재해가는 군인건설자들의 얼굴에도 땀방울이 그칠새없다.

부대지휘관 김영술동무의 말에 의하면 구분대가 맡은 작업갱길이는 450여m로서 부대적으로 제일 긴데 석수량이 많아 50m에 한개씩 집수정을 건설하고 양수기와 수중뽐프를 총동원하였다고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투장의 숨결은 더욱 높아간다.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 군인건설자들이 막장에 전진배치한 권양기와 《막장발전소》로 불리우는 능력이 큰 발동발전기, 배풍기들이 용을 쓰며 돌아간다.

직사포를 고지에 끌어올려 원쑤들을 족친 화선병사들처럼 분발해나선 전투원들에 의해 굴진단면을 통채로 들어내기 위한 천공작업실적은 분초가 다르게 높아간다. 착암이 끝나기 바쁘게 장약작업이 진행된다. 곳곳에서 발파준비가 끝났다는 보고가 연방 들어온다. 이어 발파구령이 막장에 메아리친다.

순간 《쿵-쿠쿵》 지심을 흔드는 발파소리, 천연암반 떨어지는 소리가 막장안을 들었다놓는다. 서로 두손을 마주잡고 환성을 올리는 전투원들의 모습도 보인다.

《또다시 최고기록입니다. 막장이 깊어질수록 조건은 불리하지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어주신 승리의 화살표따라 돌진해가며 우리 전투원들은 굴진속도를 최대로 높이고있습니다.》

구분대정치일군인 강성범동무의 신심넘친 말이다.

단천발전소건설장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최전방으로 여기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고 하면서 불굴의 투쟁을 벌리고있는 군인건설자들에 의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굴진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누구나 감탄하는 《병기창》

평양시려단 락랑구역대대에서

평양시려단 락랑구역대대에는 자력갱생기지가 그쯘히 꾸려져있다.

이곳에는 목재가공장과 선반, 볼반, 용접설비들이 들어앉고 사출기, 면권기, 접합기 등이 일식으로 갖추어져있다. 려단의 《병기창》으로 불리우는 자력갱생기지는 물길굴공사성과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11월이였다.

맡은 물길굴공사를 위해 작업갱수를 여러개나 늘이고 굴진전투를 본격적으로 벌리던 그때 려단적으로 걸린것은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것이였다. 막장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 문제는 더욱 절박하게 제기되였다.

결정적으로 자체의 수리기지가 있어야 하였다. 김동군, 왕혁철동무를 비롯한 려단지휘관들은 락랑구역대대를 찾아 지휘관들과 진지한 협의를 거듭하였다.

당앞에 다진 맹세를 잊지 말자.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공사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이런 비상한 자각을 안은 지휘관들은 공사에서 온을 낼수 있는 종합적인 자력갱생기지를 꾸리기 위한 전투에 달라붙었다.

려단지휘관들은 해당 기관들과의 련계밑에 장거리출장길을 여러차례나 오가면서 중요설비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썼다. 이 과정에 선반, 볼반 등이 확보되고 사출기까지 제작설치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였다.

락랑구역대대의 전투원들이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대대장 리성철, 정치지도원 전창주동무들은 걸린 문제를 앞장에서 풀어나가며 대대전투원들을 총발동시키였다. 특히 자력갱생기지의 운영에 필요한 기능공양성사업과 건물건설을 완강하게 내밀었다.

불같은 투쟁의 나날이 흘러 자동면권기는 물론 수동면권기와 접합기, 연마기, 목재가공장의 대차제작과 설치 등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심산속에 꾸려진 자력갱생기지의 위력은 높이 발휘되였다. 한달동안에만도 10여대의 전동기가 수리되고 하루에도 많은 량의 도폭선련결판을 제작하여 막장들에 보내줌으로써 발파자재가 최대한 절약되였다.

또한 각종 부속품들을 자체로 만들어 앞으로 물길굴타입공사에 쓸 원형철근휘틀, 목재휘틀제작도 선행시킬수 있었다.

오늘 이곳 자력갱생기지는 려단에 없어서는 안될 자랑많은 《병기창》으로 불리우고있다.

완강한 공격전으로 열어제낀 돌파구

대홍지도국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대홍지도국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수천척지하막장마다에서 자랑찬 승전포성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울려가고있다.

방대한 량의 작업갱공사과제 빛나게 완수!

기본물길굴도갱굴진에서 집단적혁신 창조!

한몸그대로 육탄이 되여 천만산악을 통채로 날려버려서라도 완공의 날을 기어이 앞당기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이곳 려단의 전투원들이 완강한 공격전으로 매일 기본물길굴도갱굴진과제를 110%이상으로 해제끼는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야 합니다.》

총돌격전이다. 지휘관, 돌격대원들모두가 자나깨나 기본물길굴도갱굴진과제가 몇m 남았는가, 동무는 오늘전투계획을 수행하였는가라는 량심의 물음앞에 스스로 자신을 세워보며 격전의 날과 달을 이어가고있다.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체질화한 려단전투원들은 그날과제를 그날로 무조건 끝내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바라볼수 없다고 하면서 현장에서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수력발전소건설은 단순히 자연과의 싸움, 물과의 싸움이기 전에 신념과 의지로 만난을 헤치고나가는 정신력의 결전이다.

기본물길굴공사를 위한 2개의 작업갱굴진을 립체적으로 다그치던 돌격대원들앞에 뜻밖의 석수가 터져 쏟아져내릴 때 설상가상으로 양수설비들마저 가동을 멈추었다.

시시각각 차오르는 석수가 막장과 설비들은 물론 이들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다급한 시각 과연 이들은 무엇을 생각했던가.

돌격로는 직선, 답보란 있을수 없다. 굴할줄 모르는 공격정신으로 진격의 돌파구를 기어이 열어제끼자!

물길굴을 완공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승리의 보고를 하루빨리 드리고야말려는 전체 지휘관, 돌격대원들의 불타는 충정, 결사관철의 의지가 전투장마다에 용암마냥 끓어번지였다. 대중의 심장을 쿵쿵 울리는 정치사업을 박력있게 벌리며 김성호, 김일우, 유경상동무를 비롯한 려단일군들부터가 앞장에 섰다.

박장록, 박윤철동무를 비롯한 함경북도중대와 평안북도중대의 돌격대원들이 차디찬 석수속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광차마다에 물을 담아싣고 줄기차게 내달렸다. 강원도중대와 량강도중대의 전투원들은 붉은기를 펄펄 휘날리며 장사진을 치고 줄기찬 마대전을 들이대였다.

단 12시간만에 물푸기와 버럭운반전 승리적으로 결속!

이것은 단순한 공사실적이 아니다. 막아서는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박차며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9월의 대축전장으로 떳떳이 들어서려는 이곳 돌격대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기본물길굴도갱공사에 떨쳐나선 황해남도중대와 평안남도중대, 자강도중대와 황해북도중대 전투원들의 열의 또한 하늘을 찌를듯 높다. 비약과 혁신으로 충만되여있는 이들의 전투기록장을 보라.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높은 굴진속도를 창조하여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작업갱공사과제를 훌륭히 완수한 성과속에도, 기본물길굴도갱굴진에서 집단적혁신을 창조해나가는 위훈속에도 말로써가 아니라 자랑찬 실천으로 당을 받들어가는 이들의 헌신의 피와 땀이 진하게 스며있다.

압축기와 권양기, 용접설비들과 대형화물자동차들을 보내주며 성의있는 후방물자들을 싣고 수천리길을 달려와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대홍지도국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의 모습은 전투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해주었다.

려단에서는 높은 기술기능을 소유하고있는 제대군관 유경상동무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하여 착암공, 발파공들의 강습을 실속있게 조직하고있다. 중대장들을 비롯한 일군들부터 기술학습에 모범적으로 참가하며 압축기와 권양기, 뽐프운전공들의 기술기능을 한계단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일판하게 틀어쥐고 내밀어 설비들의 만가동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하여 기본물길굴공사에 진입한지 얼마 안되는 기간에 벌써 수십m를 굴진하는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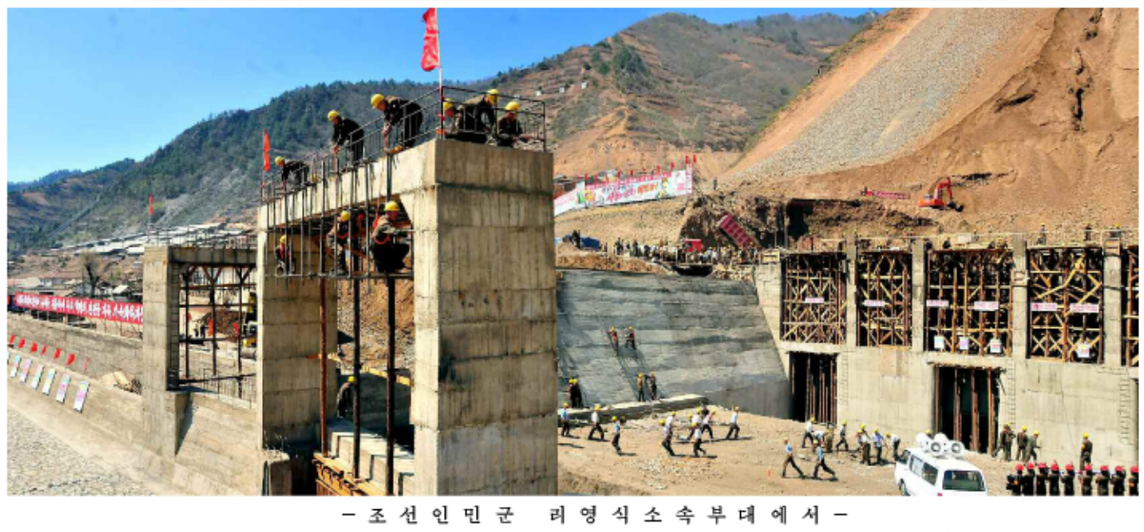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들으며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가다듬는 려단전투원들입니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우리들은 한몸그대로 육탄이 되여서라도 기본물길굴을 제기일에 훌륭히 완공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반드시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삼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려단정치일군인 김일우동무의 심정만이 아니다. 기본물길굴의 한치한치에 헌신의 구슬땀으로 자랑찬 위훈만을 아로새겨가는 전체 지휘관, 돌격대원들의 철석같은 의지이며 신념의 맹세이다.

완공의 결승선을 향하여 총돌격 앞으로!

대홍지도국려단이 맡은 기본물길굴공사구간에 필승의 신심넘친 애국충정의 대오가 줄기차게 흐르는 속에 완공의 승전포성을 울릴 그날은 하루하루 눈앞에 더 빨리 다가오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조선인민군 리영식소속부대에서—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모범학습강사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혁명의 길은 순탄치 않으며 혁명전선마다에서 견결한 혁명정신을 뼈에 사무치게 간직한 참되고 준비된 사상일군들을 부르고있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는 모범학습강사들을 아래에 소개한다.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할 때

평양남새가공공장 박혜영동무

박혜영동무는 20여년을 학습강사로 사업하면서 대중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추동하는 당초급선전일군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였다.

당초급선전일군의 긍지와 자부심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를 계기로 한층 더 높아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의 구절구절을 새길수록 박혜영동무는 당사상일군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가 얼마나 큰가를 가슴뿌듯이 절감하였다. 그는 혁명의 나팔수, 시대의 선도자로서 당의 사상을 대중에게 알기 쉽게, 설득력있고 론리정연하게 해설선전하여 학습의 실효를 높여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며 신들메를 조였다.

짬시간을 리용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학습하였으며 절세위인들의 위대성교양자료를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자료와 각종 상식자료들을 수많이 발취하여 카드화하고 강의에 리용하였다.

교육일군을 찾아가 강의방법을 배우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강의술을 높이기 위해 밤을 새우며 숙련한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는 또한 당세포위원장으로서, 기술준비원으로서 대중앞에 떳떳이 나서려면 자기가 맡은 사업에서도 모범이 되여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분발하여 지금까지 20여개의 기술혁신증서를 받았다. 이렇듯 실천과 결부된것으로 하여 그의 강의의 실효는 더욱 크다.

오늘 평양남새가공공장이 학습에서 모범이 되고있는데는 학습강사인 박혜영동무의 노력이 뜨겁게 슴배여있다.

박혜영동무의 학습강사활동을 통하여 우리는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할 때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하게 되며 그 영예도 더욱 빛내일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새겨안게 된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혁철

현실체험과 강의의 실효

평북종합대학 차광수제1사범대학 교원 김봉진동무

학습강사로 오랜 기간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성실한 당초급선전일군들가운데는 평북종합대학 차광수제1사범대학 김봉진동무도 있다.

24년간을 대학에서 학습강사로 활동해오고있는 그에게는 잊지 못할 체험담이 있다.

그가 학습강사활동을 갓 시작하였을 때의 일이다.

그는 강의준비에 많은 품을 들이였다. 학습반성원들모두가 대학교원들이어서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연단에 나설수 없다고 생각하였기때문이다.

그는 시간을 쪼개가며 학습내용을 깊이 연구하고 그와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작학습과 자료작업을 열심히 하였다.

이렇게 준비를 갖추고 강의를 하였다. 그런데 강의의 실효가 실천에서 나타나지 못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모대길때 대학당책임일군이 조언을 주었다.

강의를 위한 강의가 아니라 실지 혁명과업수행에 이바지하는 강의로 되게 하여야 한다. 중요한것은 강사가 현실을 잘 알고 강의에 구현하는것이다.

김봉진동무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하였다. 당책임일군의 이야기는 당세포위원장인 자기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당부이기도 하였다.

김봉진동무는 어느 한 소학교에 나간 기회에 자기가 직접 그곳 교원들과 사업을 진지하게 하여 찾은 경험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돌아와 강의를 진행하였다. 그랬더니 실효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경험을 얻은 그는 그후부터 현실체험을 중시하고 실천에 결부하는것을 생활화하여 그것이 혁명과업수행에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니 학습반성원들은 자기들의 본신혁명과업인 교수교양과 과학연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강사의 모범을 따르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그것은 그대로 높은 사업실적으로 이어지게 되였다.

이 나날 그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정치사상과목강좌장교수경연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데 이어 그가 속한 학습반성원들도 도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교수경연에서 련이어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였다.

그뿐이 아니다. 그가 학위학직을 남먼저 받고 연단에 나서니 그의 강의는 저절로 호소성이 강한 강의로 되였다. 학습반에 소속되여있는 력사학부 교원들모두가 석사의 학위를 받았으며 체육음악학부에서도 석사의 학위를 수여받는 교원들이 늘어났다. 력사학부는 대학적으로 제일먼저 3대혁명붉은기단위의 영예를 지니였는데 거기에도 학습강사의 노력이 크게 깃들어있다.

얼마전에는 학습반성원들가운데서 박사도 배출되였다. 그는 직관물과 다매체편집물을 배합하여 강의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도 실속있게 진행하여 그 실효를 높이였다.

이렇게 김봉진동무는 24년간 학습강사로 일하며 책임과 역할을 원만히 해왔다.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그의 체험담을 놓고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다.

현실을 잘 알고 강의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갈수록 청강자들의 심금을 틀어잡을수 있으며 그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킬수 있다는것을.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장철범

조건과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문평제련소 조액직장 로동자 강문길동무

당원들과 종업원들속에서 《우리 학습강사》로 정답게 불리우고있는 사람들중에는 문평제련소 조액직장 로동자 강문길동무도 있다.

폭넓은 지식과 류창한 웅변술이 결합된 그의 강의는 언제나 청강자들에게 커다란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중요한것은 그의 강사활동이 그 어떤 고정된 학습장소에만 국한되여있지 않다는것이다.

언제인가 맡겨진 월생산계획을 기한전에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을 때였다.

직장안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 할것없이 뛰고 또 뛰였다. 그러던 어느날 뜻밖의 난관이 조성되였다.

례년에 보기 드문 강추위로 하여 증기관이 얼어들기 시작했던것이다. 용액생산에 지장을 줄수 있는 긴박한 정황앞에 사람들은 주춤했다.

그것을 극복하자면 높이 5m가 실히 되는 곳에 올라가 얼어든 관부분을 찾아 녹여야만 했다. 얼어든 관의 길이가 얼마인지도 몰랐다.

바로 이때 당세포위원장이며 학습강사인 강문길동무가 사람들앞에 나섰다.

그는 제련소에 깃들어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자력갱생, 간고분투로 맡겨진 혁명임무를 제 날자에 어김없이 수행한 전세대 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과 투쟁기풍에 대하여 다시금 새겨주었다. 그러면서 이쯤한 난관앞에 주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대정신의 창조자들이라고 떳떳이 말할수 있겠는가, 하자고 결심한 사람에게는 막혔던 문도 열리는 법이다,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견인불발의 의지로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비록 연락은 따로 없었지만 학습강사의 불같은 호소는 대중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앞장에서 달려가는 강문길동무의 뒤를 따라 모두가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저저마다 타오르는 불길이 되여 얼어든 증기관을 녹이는 전투를 긴장하게 벌리였다. 하여 일시적인 난관이 극복되였다. 이런 투쟁속에 직장은 월생산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2월 어느 한 작업반의 로동자가 몸이 불편하여 학습에 참가하지 못한적이 있었다.

그날 저녁 강문길동무는 그의 집을 찾았다. 갖가지 식료품과 여러가지 병치료에 좋은 약재들도 안겨주고나서 그는 그날 진행한 강의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었다.

우리 당정책과 그 실현을 위한 방도, 우리 인민이 지닌 불굴의 정신력에 대하여…

학습강사가 지닌 뜨거운 인정미와 맡은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다시한번 깊이 절감하며 그 로동자는 분연히 일어섰다.

이렇듯 강문길동무는 지난 10여년간 학습강사로 활동하면서 대중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당정책을 심어주고 불러일으켰다.

바로 이런 그였기에 대중은 그를 가리켜 《우리 학습강사》라고 정답게 부르며 따르고있는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윤명철

이들처럼 과학농법으로 다수확의 담보를 마련하자

강남군 장교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당의 의도대로 농사를 잘 지어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무엇을 기본고리로 틀어쥐여야 하는가.

얼마전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강남군 장교협동농장 일군들과 론의하면서 취재를 심화시키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이 농장에서는 지난 2년동안 련이어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특히 농장에서는 지난해에 전해보다 정보당 3t이상의 알곡을 더 생산하여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한 경험에 기초하여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보다 높이 세웠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한가지 문제점을 찾았다.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과학농법으로 다수확을 담보하자. 이것이 이 농장 일군들이 창조한 경험의 핵이였다.

다수확품종에 앞선 영농방법을 더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다수확품종을 심고 앞선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농장일군들은 지난해 농사를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가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영농방법을 받아들인것이다.

지난 기간 농장에서는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을 위한 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일반랭상모를 키워 농사를 짓던 방법에서 벗어나 영양알모와 속성모를 키워내면서 그에 맞는 영농방법을 받아들이였다. 특히 람조류생물활성퇴비를 생산하여 포전들에 실어내며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알곡생산이 어느 정도 올랐다. 알곡생산이 지난 시기보다 오르자 농장원들은 물론 일군들도 포전들에 람조류생물활성퇴비를 내고 영양알모나 속성모를 키워 농사를 지으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었다. 결과 농사차비때가 되면 농장일군들속에서 영양알모를 키워야 한다느니, 속성모가 더 좋다느니 하는 의견들이 오가군 하였다. 이런 의견들은 어디까지나 어제날의 농사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였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그들이 과학과 기술로 발전하는 시대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모르고있는것이였다.

이 문제를 놓고 관리위원장 강영필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최근년간 해마다 정보당 10t의 알곡을 생산하는 농장들에 비해볼 때 농장일군들의 사고방식이 너무도 뒤떨어졌기때문이였다.

당의 과학농사방침을 관철하자면 일군들의 경험주의를 뿌리뽑아야 한다.

이렇게 결심한 그는 그 방도를 모색하였다.

그러던 어느해 겨울 그는 중앙의 한 일군으로부터 평안북도와 황해남도의 여러 협동농장들에서 새로운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받아들인데 기초하여 앞선 영농방법으로 농사를 지어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지난 시기보다 훨씬 높이였다는 말을 들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봄이 되자 관리위원장과 리당위원장을 비롯한 농장일군들은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 가보았다.

사실이였다. 포전들에 다수확품종으로 이른큰모를 키워내는것이였다. 더욱더 이채로운것은 소식재배방법을 받아들인것이였다.

그날 농장에 돌아온 리당위원장 곽성호동무는 일군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일군들부터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야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에게 내린 구령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여 농장일군들은 어느 한 작업반의 일부 포전들을 시험포전으로 정하고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이때 그들이 잘한것은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의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인것이 아니라 농장의 실정에 맞게 씨뿌리기를 일찌기 시작하고 벼모도 7일이상 더 키워내기로 한것이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농장일군들은 농업부문의 연구사와 련계를 가지면서 수확고가 높은것으로 알려진 두가지의 다수확논벼품종을 마련한데 이어 대비시험을 시작하였다. 일군들과 작업반기술원들은 두가지 품종중의 일부는 3월초부터 온실을 리용하여 모를 키우고 일부는 3월 중순에 밭랭상모판에 씨를 뿌리였다. 그리고 5월 20일경에 모를 내고 비배관리를 따라세웠다.

어느덧 가을이 되여 논벼품종별에 따르는 정보당 수확고를 판정한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어느 한 품종은 정보당 수확고가 12t이상 났기때문이였다.

이 문제를 놓고 일군들은 이런 결론을 내리였다.

우선 지대적특성에 맞는 종자를 선정하고 실정에 맞는 영농방법을 받아들이자. 중요한것은 밭랭상모판에서 이른큰모를 키워내는것이다. 이른큰모를 키우면 모판단계에서부터 영양알모나 속성모보다 아지를 훨씬 많이 친다. 또한 이른큰모를 내면 모살이기간이 거의 없다싶이 하며 아지도 폭발적으로 더 친다. 그리고 이삭당 알수도 늘어난다. 따라서 정보당 수확고가 오른다. …

이렇게 되여 농장에서는 지대적특성에 맞는 종자를 선정한데 기초하여 그에 따르는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그리하여 온 농장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졌다.

결과 지난해에 농장이 생겨 처음으로 알곡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제5작업반과 제3작업반의 여러 포전들을 비롯한 일부 포전들에서는 정보당 12t이상의 소출이 났다.

농장일군들은 이 경험에 기초하여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더 높이 세우고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때 그들이 잘한것은 이른큰모를 키우는 시기 모잎자르기방법을 받아들이도록 하여 알곡수확고를 더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한것이다.

원래 이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일부 작업반초급일군들은 이른큰모가 한창 자라는 시기에 잎을 잘라주어 수확고에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는가고 하였다.

이 문제를 놓고 기사장 강영호동무는 과학과 기술로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라는것은 당의 요구이다. 지난해 제5작업반의 일부 포전들에서 정보당 수확고가 다른 작업반들보다 높은 비결의 하나가 바로 모잎을 잘라준데 있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지난해 제5작업반에서는 모판에 씨를 뿌린 때로부터 40일후 벼모상태를 보고 모잎의 웃부분을 1~2번 잘랐다. 이렇게 모잎을 자르니 해빛을 많이 받아 헛자라는 현상이 훨씬 줄어들었다. 특히 잎을 잘라낸 모는 아지도 많이 치고 이삭당 알수도 많았다. 결국 수확고가 더 높았다.

그 말을 들은 작업반초급일군들은 저마다 그 방법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잎자르는 기구를 만들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지난해농사경험에 기초하여 올해 높이 세운 알곡생산계획수행을 위한 기술적문제들이 자주 토의되면서 농장일군들과 작업반초급일군들의 사상관점과 태도가 달라진것은 물론 기술실무수준도 더욱 높아졌다.

이것이 올해 알곡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는 담보로 되였다.

생산의욕에 실무수준을 따라세우라

대중의 생산의욕은 알곡생산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이런 면에서 볼때 농장에서 포전들을 농사조건에 따라 가른데 이어 모든 작업반들에 포전들을 골고루 분담하고 알곡생산계획도 큰 차이가 없이 주어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인것은 경험적이라고 할수 있다.

사실 지난 기간 이 농장의 포전들도 다른 농장들처럼 작업반들의 포전이 지역별로 있었다. 따라서 작업반들의 농사조건은 물론 알곡생산계획도 달랐다. 그런것으로 하여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이 지금처럼 높지 못하였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것은 일군들이 알곡생산이 오르지 못하는 원인의 하나가 종자나 농사조건, 영농방법에 있는것으로 알고있는것이였다.

이러한 때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이 당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는 원인이 작업반들에 포전분담을 잘못한데 있다는것을 밝혀낸 사람은 리당일군이였다.

어느날 제1작업반 포전에 나가 거름을 져나르다가 해가 저물어서야 작업반초급일군과 이야기를 나누며 걸음을 옮기던 리당일군은 뒤에서 농장원들이 주고받는 말에 귀를 기울이였다.

작업반마다 농사조건이 비슷해야 경쟁의욕이 생기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것이였다.

그 말을 들은 리당일군은 생각되는것이 많았다.

대중의 생산의욕을 당의 요구에 따라세우자면 우리 일군들부터 구태의연한 사업방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그는 그날 저녁 농장일군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루일을 끝내고 들어오는 길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다.

소홀히 대할수 없는 일이였다. 그리하여 이날 일군들은 작업반들의 농사조건문제를 놓고 밤깊도록 토론을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포전들을 농사조건에 따라 가르고 작업반들에 골고루 분담하자는 안이 나왔다.

이렇게 되여 다음날 농장일군들은 포전들을 돌아보며 농사조건에 따라 등급을 정하였다. 그리고 작업반초급일군들이 의견이 없도록 포전들을 다시 분담하였다. 한편 작업반들에서도 포전분담을 실정에 맞게 골고루 하였다.

결과 온 농장에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작업반별, 분조별, 농장원별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져 그것이 알곡생산성과로 이어졌다.

농장에서 과학농법으로 다수확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면서 또 한가지 잘한것은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앞선 영농방법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실정에 맞게 한것이다.

모든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이른큰모를 키워 소식재배방법으로 농사를 짓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알고 실천에 받아들인 사실이 그 실례이다.

원래 농장에서 다수확품종의 종자로 이른큰모를 키워 농사를 짓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을 때 농장원들은 물론 일부 작업반초급일군들까지 그에 대한 상식이 없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포기당 대수와 평당 포기수를 지난 시기보다 50%이하로 줄이면 안된다고 하면서 난처한 기색을 드러내였다.

농장일군들은 이 문제를 놓고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10일지령총화를 시험포전에서 하면서 작업반초급일군들에게 앞선 영농방법의 우월성을 설명해주자는 안이 나왔다.

그후 농장에서는 종자준비로부터 시작하여 모판만들기, 씨뿌리기, 모기르기 등이 진행되는 전기간 10일지령총화가 시험포전에서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작업반초급일군들이 앞선 영농방법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

한편 일군들은 농장원들에게 다매체편집물을 보여주면서 이른큰모와 소식재배의 우월성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해설해주었다. 그러자 그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루일이 끝나면 새것에 민감한 농장원들은 저마다 말없이 시험포전들에 나가보았다.

현실을 본 그들은 그때에야 이른큰모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였다.

이들만이 아니였다. 이른큰모를 키워 소식재배방법으로 농사를 짓는것을 반대하던 농장원들도 슬그머니 시험포전에 나가보았다. 현지에서 다매체편집물로 본 자료와 평당 포기수, 포기당 대수, 이삭당 알수 등을 대비해본 그들은 그때에야 자기들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졌는가를 알았다고 하면서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여야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다고 하였다.

농장에서는 대중의 생산의욕과 실무수준이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서자 모든 작업반들에서 이른큰모를 키워 소식재배방법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하지만 대중의 생산의욕이 높아지고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려는 열의가 고조된다고 해서 알곡증산의 돌파구가 열리는것은 아니였다. 모내기가 시작되자 농사일을 도와주기 위해 포전에 나왔던 로인들이 벼모를 이렇게 크게 키워 듬성듬성 꽂는것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되돌아서는것이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당일군들은 얼굴이 달아오르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한해농사가 시작되면 스스로 나와 일손을 도와주군 하는 로인들이 지난날의 굳어진 농사방법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는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했기때문이였다.

포전으로 나왔다가 되돌아선 로인들을 만난 일군들은 이른큰모와 소식재배의 우월성을 차근차근 설명하였다. 그때에야 앞선 영농방법의 우월성을 알게 된 로인들은 너도나도 농사일을 도와나섰다.

결과 농장에서는 열흘도 되기전에 모내기를 결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장에서 지대적특성에 맞는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바로 정한데 기초하여 대중이 높은 생산의욕을 가지고 이른큰모에 의한 소식재배로 농사를 짓는 방법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든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였다. 농장에서는 지난 시기보다 종자와 비닐박막을 비롯한 여러가지 영농자재와 물자를 적게 쓰면서도 알곡생산에서 일찌기 없었던 기적을 창조하였다.

농장에서는 지난해농사경험에 기초하여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더 높이 세우고 농업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중단없이 내밀고있다.

이 농장의 경험은 모든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과학농법만이 다수확을 담보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떨쳐나설 때 알곡증수의 돌파구가 마련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창 길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브라질국회 상원 의원대표단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8일 페르난두 팔로르 브라질 전 대통령이며 국회 상원 외교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브라질국회 상원 의원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절세위인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단장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오사까부상공회결성 70돐기념 동포상공인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8일 재일본조선오사까부상공회결성 70돐기념 동포상공인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태양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브라질국회 상원 의원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페르난두 팔로르 브라질 전 대통령이며 국회 상원 외교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브라질국회 상원 의원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손님들은 조국과 민족, 력사와 인류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돌아보았다.

단장은 만경대방문을 통해 조선인민의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에 대하여 다시금 알게 되였다. 그이는 일본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사회주의조선을 일떠세우신 위대한분이시다고 말하였다.

대표단은 또한 주체사상탑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옥류아동병원 등을 참관하였다.

재일본조선오사까부상공회결성 70돐기념 동포상공인조국방문단 도착

김영진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오사까부상공회결성 70돐기념 동포상공인조국방문단이 2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해외동포사업국 부국장 박혁동지가 맞이하였다.

일본 오사까 일조우호대표단 도착

고가 시게루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오사까 일조우호대표단이 2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중국국제우호련락회대표단 귀국

주신정 부비서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국제우호련락회대표단이 28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심장의 목소리-조국이여 마음껏 설계하라

오석산화강석광산 일군들과 로동계급

오석산화강석광산은 나라의 손꼽히는 석재생산기지이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천지의 돌계단으로부터 섬초소의 병실에 이르기까지 이곳 광산에서 생산한 천연화강석가공품이 가닿지 않은데가 없다. 세상을 놀래우며 솟아오른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인민사랑의 건축물들마다에서 오석산화강석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애국의 구슬땀이 배인 천연석재들이 만년대계의 받침돌이 되고 장식돌이 되여 그들의 값높은 위훈을 말없이 전해주고있다.

지난해의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전형단위의 영예를 떨치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다.

세월의 눈비에도 부식되지 않는 천연화강석처럼 변함없는 애국의 한모습으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이들의 심장은 과연 어떤 신념으로 고동치고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눈보라가 모든것을 사정없이 얼구던 지난 1월이였다. 얼굴을 때리는 눈가루를 손으로 막으며 광구로 향하는 지배인 창재룡동무의 머리속에서는 줄곧 하나의 생각이 고패치고있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보내줄 수천㎥의 뚝돌을 제기일내에 보장할수 있는 방도는 무엇인가.

원석2직장 생산현장에 들어서던 창재룡동무의 얼굴에 미소가 피여올랐다. 하나같이 일매지게 다듬은 큼직한 뚝돌무지가 쌓여있는것이 눈에 뜨이였던것이다. 그는 로동자들과 함께 일손을 다그치는 직장장 김상근동무의 곁으로 다가갔다.

《영웅직장장이 일하는 곳이 역시 다르구만.》

로력영웅인 김상근동무가 어줍은 미소를 지으며 한곳을 가리켰다. 그곳으로 눈길을 돌리던 창재룡동무는 두눈을 의심했다. 직장성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있다는것이 현등히 알리였다.

《글쎄 가족들이 자기들도 전투에 참가하겠다고 저렇게 달려나왔습니다.》

김상근동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창재룡동무의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모두가 처녀시절에 광산에서 한다하는 혁신자, 기능공으로 이름떨치던 녀인들이였다.

《우리 광산종업원명단을 다시 작성해야겠구만. 가족들의 이름까지 모두 올려야겠단 말이요.》

지배인의 정깊은 목소리에 녀인들이 뜻있는 미소를 지으며 잠시 일손을 멈추었다. 김창실동무가 다듬던 돌을 쓸어보며 젖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던 그날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석산의 녀인들도 남편들과 함께 혁명적인 총공세의 앞장에 서겠습니다.》

모두의 눈가에 맑은것이 고여올랐다. 나라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 바쳐진 이곳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들, 가족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깊이 헤아리시여 영광의 단상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랑과 믿음은 그대로 기적과 위훈창조의 원동력이였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는 불씨였다.

일군들과 로동자들, 가족들은 그날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산정을 내리지 말자고 하며 전투를 벌려나갔다. 직장의 하루작업능률이 5배의 실적을 기록하는 속에 돌가공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연마직장의 전투원들이 일하는 뚝돌생산현장에서도 련일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기계로 돌제품을 가공하던 그들에게 있어서 뚝돌생산은 생소했고 기공구도 부족하였다. 하지만 그들도 당에서 준 과업을 무조건 수행하는것을 체질화한 오석산의 광부들이였기에 조건이나 경험같은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직장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제기일에 정확히 수행하겠는가 하는데로 모두의 생각이 합쳐졌다. 이들은 기공구를 자체로 마련하고 뚝돌가공묘리를 하나하나 터득하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뜻깊은 광명성절전으로 직장앞에 맡겨진 과제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연마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어느 한 중요대상건설장에 보내줄 돌제품생산전투에서도 집단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였다.

어느날 가공작업반의 공훈광부 김원일동무가 일하는 곳으로 안해가 찾아왔다. 처녀시절에 한다하는 기능공이였던 로혜영동무였다. 돌제품을 가공하는 안해의 모습을 정차게 바라보던 김원일동무의 입에서 웅글은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당신의 일솜씨는 여전하구만.》

그러는 남편을 바라보며 로혜영동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석산사람의 본태야 어디 가겠나요.》

곁에 있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마음도 발걸음도 하나가 되여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을 더없는 보람과 긍지로 여기며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오석산화강석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들, 가족들.

조국이여, 우리를 믿고 마음껏 설계하라!

바로 이것이 그들의 심장속에 고동치는 신념이고 배심이며 애국의 의지이다.

오석산화강석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긍지드높이 떳떳이 맞이할 념념을 안고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기개와 본때를 남김없이 떨치며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조 경 철

우리 나라 원은경선수 2018년 아시아청년권투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쟁취

우리 나라의 원은경선수가 2018년 아시아청년권투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지난 19일 타이의 방코크에서 시작된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끼스딴을 비롯한 30개 나라와 지역의 남, 녀선수 200여명이 참가하였다.

우승의 일념안고 평시에 자기의 육체기술적능력을 튼튼히 다져온 원은경선수는 녀자 54kg급 준결승경기에서 인디아선수를 5:0으로 이기고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원은경선수는 결승경기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고 자기의 특기와 기술을 잘 살려 까자흐스딴선수를 5:0으로 누르고 제1위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감독원

평안남도의 차량감독소 감독원 김대훈동무는 지난 기간 평원군안의 농장들의 농사일을 적극 도와주는 등 여러가지 좋은 일을 찾아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있다.

언제인가 청보협동농장에 나갔던 그는 한 작업반의 농사차비가 시원치 않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그는 자기가 마련한 많은 량의 닭배설물을 가져다주었으며 영농공정때마다 필요한 영농물자들을 보내주었다.

그의 아름다운 자욱은 군안의 여러 단위들에도 깃들어있다. 그는 힘든 농사일을 기계화하자면 륜전기재의 만가동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남산협동농장의 뜨락또르운전수들을 위해 작업복도 마련해주었으며 어느 한 공장의 륜전기재가 고장났을 때에는 부속품들을 얻기 위해 먼길을 걷기도 하였다.

그리고 월일리에 사는 한 영예군인가정을 위하여 지붕도 수리해주고 생활용품도 마련해주는 등 원심을 무척 썼다.

하기에 누가 보건말건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우리 감독원이라고 정답게 부르고있다.

본사기자

누에고치생산을 늘이는데 힘을 넣어

박천군에서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박천군에서 누에고치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얼마전 군에서는 많은 토량을 처리하면서 송도, 맹중협동농장의 물길정리공사를 해제끼고 수십정보의 뽕밭을 정리하는 등 누에고치생산을 늘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누에고치생산을 늘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잘하고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지난 4월초 박천군당위원회 책임일군의 방에서는 협의회가 진행되고있었다. 토의된 문제는 해마다 장마철이면 물에 잠기는 송도, 맹중협동농장의 포전들을 통과하는 물길을 정리하면서 박천고치생산사업소 청년작업반의 수십정보의 뽕밭을 정리해주자는것이였다. 물길을 정리하여야 큰물피해를 막을수 있기때문이였다.

수만㎥의 토량을 처리해야 하는 일감은 참으로 방대하였다.

일부 일군들은 지금까지 미루어오던 물길정리공사만 하자고 해도 아름찬데 어떻게 뽕밭까지 정리하겠는가고 하였다.

하지만 군당책임일군은 알곡생산과 함께 잠업도 중요하다고,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더 많은 누에고치를 생산하자고 하면서 일군들을 불러일으켰다.

군급기관, 공장, 기업소, 가두인민반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녀맹원들이 떨쳐나섰고 삽차,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륜전기재들이 동원되였다. 그들은 송도, 맹중협동농장의 물길정리공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청년작업반의 뽕밭을 정리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방송선전차와 군기동예술선동대를 비롯한 선전선동수단과 력량을 집중하여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면서 전투장이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였다.

현장지휘부에서는 물길정리공사와 수십정보의 청년작업반 뽕밭을 정리하기 위한 공사를 동시에 내밀었다.

들끓는 전투장에 나간 군당책임일군은 물길정리와 뽕밭정리를 잘해야 알곡과 누에고치생산을 늘일수 있다고 하면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군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가두인민반의 녀맹원들은 애국적열의를 안고 말겨진 물길과 뽕밭정리과제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수행하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한편 현장지휘부에서는 삽차, 자동차를 비롯한 륜전설비들을 동원하여 큰물피해를 받은 10정보의 뽕밭을 원상복구하도록 전투조직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박천고치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청년작업반원들은 신심에 넘쳐 복구된 뽕밭들에 전호식으로 구뎅이를 깊이 판 다음 질좋은 거름을 채워넣고 뽕나무를 심었다. 그리하여 군에서는 아름차다고 하던 물길정리공사와 뽕밭정리를 며칠동안에 해제끼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결국 군에서는 누에고치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특파기자

기행

은혜로운 사랑속에 인민의 기쁨 꽃피는 룡악산

그 경치가 하도 아름다와 평양의 금강산으로 불리우는 룡악산, 봄의 정취를 함뿍 머금은 명산을 찾아 차를 달리는 우리의 마음은 무척 즐거웠다.

우리를 손저어 부르는듯 한 룡악산의 용자가 점점 가까와질수록 70년전의 봄날 몸소 이곳을 찾으시여 인민의 유원지로 훌륭히 전변시킬 구상을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이 되새겨져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온갖 조건이 마련되여있습니다.》

우리를 반겨맞은 룡악산유원지관리소 지배인 리성희동무는 룡악산에로의 등산길로 일행을 안내하였다. 룡악산에서의 즐거움은 뭐니뭐니해도 등산에 있다는것이였다. 그를 따라 등산의 첫 자욱을 뗀 우리의 눈앞에 돋직한 룡악산의 봉우리를 배경삼아 자기의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평양시전쟁로병보양소가 나타났다.

특색있는것은 전쟁로병보양소와 온정호를 련결하는 구름다리였다. 훌륭한 건물과 아름다운 호수를 이어주는 구름다리의 모양새 또한 자연풍치에 잘 어울리게 기암절벽으로 이채롭게 형상되여있었다.

조국을 위하여 청춘을 바친 우리의 전쟁로병들을 한품에 안아 이렇듯 경치좋은 명승지에서 로당익장하도록 하여준 당의 은정을 뜨겁게 느끼며 우리는 온정호로 향했다.

온정호의 경치를 부감하느라니 보이는것마다 탄성을 자아냈다. 파아란 호수에 하늘하늘 춤추며 날아내려서는 물결을 따라 동동 배놀이하는 꽃잎들, 산뜻한 온정각에서 시작되여 100m나 되게 뻗어나간 외랑, 물면을 거울삼아 제모습을 이리저리 비쳐보는듯 고개를 숙이고 봄바람에 흐느적이는 수양버들, 망울을 한껏 터친 꽃송이들로 아름다운 무지개동산을 펼친 갖가지 꽃나무들…

호수를 가로지른 아치형돌다리도 특색있었고 호수한가운데 우뚝 솟아난 바위에서 맑은 물이 쉬임없이 흘러내리는 모양도 볼만 하였다.

온구슬들이 쏟아져내리는듯 폭포수가 물보라를 일으키는 절벽면의 한쪽에 새겨져있는 《평양의 금강산 룡악산 이천십칠년 오월 십이일》이라는 글발 또한 눈뿌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온정호에서 발걸음을 돌려 우아하면서도 시원스럽게 들린 합각지붕을 돋직하게 떠이고선 유원지문루를 지나니 곧 삼룡골이 나졌다.

《여기 삼룡골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세마리의 룡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거대한 몸집을 늘어뜨린 룡을 형상한 조각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배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옛날 바다속 룡왕이 부귀영화에 눈이 어두워 세월을 보내다가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산 일이 있었다.

바빠난 룡왕은 제일 믿음직한 룡을 하늘나라에 올려보내여 자기의 속죄의 뜻을 전하려 하였다. 하여 처음으로 바깥세상구경에 하늘나라구경까지 하게 된 룡이 서해를 따라 거슬러올라오다가 여기 룡악산기슭에서 솟구쳐오르게 되였는데 그만 명산의 아름다운 경치에 이끌려 비늘이 다 마르면 날수 없다는 룡왕의 신칙을 감감 잊어버리게 되였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룡이 입을 쩍 벌리고 용을 쓰며 날아보려 했건만 이미 비늘이 다 말라버려 이렇게 돌로 굳어지고말았다. …

구수한 전설에 심취된채 몇걸음 더 올라가는데 또 두개의 룡조각이 나타났다.

《이 두마리의 룡이 다시 룡왕의 서신을 안고 떠났지만 룡악산의 경치앞에서 먼저 떠났던 룡의 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등산길을 이어갈수록 세마리의 룡이 그 절경에 반하여 제 할일도 잊었다는 전설처럼 룡악산의 경치는 정말 아름다왔다. 등산길을 따라 얼마간 가느라니 산기슭에 여러가지 모양의 돌의자들이 놓여있었다.

한두명이 조용히 마주앉을수도 있고 수십명, 수백명이 동시에 유희오락도 하고 식사도 할수 있게 꾸려진 이곳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의 유원지답게 잘 꾸렸다고 만족을 표시하신 휴식터였다.

인민들에게 행복한 문화정서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기울이신 어버이사랑은 정녕 꽃의자 하나에도, 미끄러질세라 갖가지 문양을 도드라지게 부각해놓은 등산길에도, 아찔한 바위등판과 등산길들에 든든히 박힌 란간들마다에도 속속들이 스며있었다.

힘든줄 모르고 걸음을 다우쳐 오른 우리는 룡악산 남쪽중턱에 자리잡은 력사유적 법운암에 다달았다.

우리는 여기서 법운암의 보존관리실태를 알아보려고 산에 오른 만경대구역민족유산보호관리소의 한 일군을 만나볼수 있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룡악산이 안고있는 또 하나의 자랑인 법운암에 대해 잘 알게 되였다.

깎아지른듯 한 높은 벼랑을 배경으로 하고있는 법운암은 고구려때 세워졌다고 한다. 법운암주변에는 천연기념물들인 룡악산느티나무, 룡악산참중나무, 룡악산회화나무, 룡악산은행나무가 있었다.

오랜 세월의 풍파를 이겨내며 꿋꿋이 자라 룡악산의 풍치를 더한층 돋구어주고있는 이 나무들에는 가지가지 전설들이 깃들어있었는데 세그루가 하나의 나무처럼 합쳐진 룡악산은행나무에도 예로부터 전해져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임진조국전쟁시기 나라를 지켜싸울 뜻을 품은 세 중이 산을 내리기에 앞서 씨를 뿌린것인데 그들은 비록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들의 애국의 한마음이 어린 은행나무들은 이렇듯 억세게 자라나 선조들의 슬기와 애국심을 전해주고있다는것이였다.

법운암을 돌아보고난 우리는 대봉으로 향했다. 대봉으로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로 뻗어있었는데 어쩐지 경사가 보다 급하고 비좁은 굴길로 되여있다는 등산길이 우리의 마음을 더 끌었다.

신들메를 든든히 조여매고 급경사의 계단을 오르는 우리에게 일군은 룡악산을 인민의 유원지로 훌륭히 꾸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구슬땀을 바친 돌격대원들과 군인건설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룡악산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상할세라 발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순수 함마와 정대를 가지고 암반을 까내고 등짐으로 건설자재를 져날랐다는 이야기를 듣느라니 길섶에 미소를 머금고 피여난 민들레꽃 한송이, 딛고선 계단 하나도 무심히 대할수 없었다.

얼마 안가서 우리앞에는 정말 경사각이 80° 가 넘는다는 바위굴길이 나졌다.

일명 《개미굴》로 불리운다는 이 굴길은 한사람이 겨우 지날만큼 비좁았는데 두손을 짚어가며 꼬불꼬불한 굴길을 통과하고나니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내돋았다. 등산의 새로운 진미가 우리의 마음을 흥그럽게 하여주었다. 듣던바대로 룡악산등산길에 올랐던 사람들이 두고두고 잊지 못하며 즐겁게 추억할만하였다.

어느덧 양지바른쪽에 자리잡은 부감터에 다달은 우리는 기다렸다는듯 시원한 그늘을 던지며 서있는 소나무밑으로 가서 돌의자에 앉았다.

우리의 눈앞에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주변경치가 펼쳐졌다.

발밑은 깎아지른듯 한 절벽인데 돌란간너머로 내려다보이는 룡악산의 풍치는 장관이였다.

솔봉정을 품어안고 선 봉우리가 손에 잡힐듯 안겨왔다. 그뒤로는 흰구름을 떠이고 듬직하게 솟아있는 대보산이 보였다.

시원한 산바람마저 정답게 느껴지는 이곳에서 땀을 들이는 동안 지배인 리성희동무는 유원지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지난 기간에 수많은 나무들을 심은 자랑을 펼쳤다.

절세의 위인들께서 마련해주신 사랑의 등산길 굽이굽이를 말없이 지켜가는 이곳 유원지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정성을 전하듯 청고운 목소리로 우짖는 새들의 지저귐소리를 들으며 다음으로 우리가 가닿은 곳은 창덕학교시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이 깃든 사연많은 문바위였다.

대문처럼 서있다고 하여 문바위라고 불리우는 두개의 묘한 바위중 하나는 낭떠러지우에 뾰족하게 서있고 다른 하나는 평퍼짐하기때문에 건너가기는 쉬우나 건너오기는 조련치 않다고 한다.

나라찾을 큰뜻을 품으시고 자주 룡악산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른들도 감히 넘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문바위를 넘나드시며 슬기와 용맹을 키우시였다.

참으로 룡악산이 안고있는 하많은 사연은 하나하나가 다 명산과 더불어 영원토록 전해갈 불멸의 이야기들이였다.

마침내 대봉정점에 자리잡은 송덕정에 오른 우리의 환희는 이를데 없었다.

웅장화려하게 변모된 수도의 모습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에서 우리는 룡악산은 산도 아름답지만 평양의 일만경치를 다 볼수 있어 더욱 좋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아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거리들과 곳곳에 더 훌륭히 꾸려진 문화휴식터들, 기념비적건축물들로 하여 몰라보게 전변된 아름다운 평양, 더욱 푸르러진 산들을 우리 장군님께 보여드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리움에 불타는 우리의 마음을 읽은듯 지배인은 뜨거움에 젖은 목소리로 이렇게 되뇌이였다.

《이곳에 오르시여 어느 명절날같은 때 여기에 와서 휴식을 한번 해보고싶은 생각이 든다고 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교시를 가슴속에 새겨안고 기다려온 우리들이였습니다. …》

더 말을 잇지 못하였지만 그의 심장의 목소리는 우리의 가슴속을 파고들었다.

대소한의 추위속에 룡악산을 찾으시여 100여개나 되는 계단을 몸소 오르시며 인민의 유원지로 꽃펴날 명산의 래일을 가꾸어주신 그 헌신, 그 숭고한 뜻이 현실로 꽃펴난 룡악산이 손짚아 그이를 모실 날을 기다렸건만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느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

불타는 그리움을 안은 우리의 마음인양 저 멀리 하늘가에 붉은 노을빛이 어리는데 문바위쪽에서 청년들의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룡악산아!—》

20여개의 봉우리들을 감돌며 메아리가 되여 울려퍼지는 그 장쾌한 울림에 화답하여 우리도 온 세상을 향해 마음껏 웨치고싶었다.

태양의 빛발아래 내 조국의 만년재보, 인민의 명산으로 빛을 뿌리는 룡악산을 찾는 사람들이여, 부디 잊지 마시라.

몸도 마음도 충정과 애국으로 뜨겁게 달구어주는 이곳에 깃든 인민사랑의 자욱자욱을!

김 수 정

일터에 넘치는 보람과 긍지

함흥일용품공장을 찾아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자욱이 아로새겨져있는 함흥일용품공장을 찾았다.

구내에서 우리와 만난 공장의 일군은 먼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교시판앞으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인민생활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46(1957)년 5월 공장을 찾으시여 인민소비품생산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6(1967)년 8월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학용품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교시를 새겨가는 우리에게 일군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장은 지난 기간 인민소비품과 학용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왔으며 이 나날에 국기훈장 제1급과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게 되였다고 긍지를 담아 말하였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공장건물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지나온 년대마다에 인민소비품과 학용품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해온 공장의 모습은 우리에게 더없이 정답게 안겨왔다.

우리는 먼저 성형작업반을 찾았다. 현장에서는 로동자들이 한창 필갑을 생산하고있었다. 작업반장은 지방의 원료원천을 리용하여 학용품의 품종도 늘이고 질도 높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심장깊이 새긴 작업반원들이 자기 자식들의 학용품을 만드는 심정으로 일손을 다그치고있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이곳 작업반의 자랑은 그뿐이 아니였다. 작업반에서는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압출기들에 자동온도조종장치를 도입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고있었으며 프레스에 배풍장치를 설치하여 작업환경을 더욱 개선해나가고 있었다.

작업반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공장에 대한 애착심을 간직하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지펴가는 공장로동계급의 정신세계를 엿볼수 있었다.

우리는 이어 중공작업반 로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서는 중공성형기를 리용하여 여러가지 크기의 수지통을 생산하고있었다.

기대공은 우리에게 공장에서 생산한 통들은 색갈이 곱고 질이 좋아 사람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우리가 기대앞에 서있는 동안에도 성형기에서는 파란색의 비닐통들이 계속 성형되여나오고 있었다.

공장에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기계설비들이 만가동하고 있었다. 그 성과속에는 기계설비들을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며 그 능률을 높이기 위해 바친 공장로동자들의 지칠줄 모르는 노력이 깃들어있었다.

공장일군은 우리에게 중공작업반의 작업반장이 원료공급수감장치를 창안하여 기계의 생산성을 훨씬 높이였다고 알려주는것이였다.

이곳 로동계급이 바쳐가는 뜨거운 공장애를 전해주며 기계들은 어느 현장에서나 고르로운 동음을 울려가고있었다.

혁신의 소식을 우리는 전기작업반에서도 들을수 있었다. 작업반에서는 교차생산조직을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 기술적방안들을 현장들에 도입하였으며 공장의 압출기들에 모두 자동온도조종장치를 설치하였던것이다.

공장에 나래치는 과학기술중시열풍을 우리는 과학기술보급실 벽면에 소개된 기술혁신명수들의 사진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었다.

우리가 공장구내에 나서니 로동자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화물자동차에 싣고있었다.

얼굴에 웃음을 담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제품들을 적재함에 싣는 작업모습은 우리의 마음도 흥그럽게 하였다.

이곳 로동계급이 만든 제품을 받아안고 기뻐할 인민들의 모습이 벌써 보이는것만 같았다.

우리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소비품과 학용품생산에서 앞으로도 계속 혁신을 창조해가리라는것을 확신하며 공장을 떠났다.

본사기자 차 수

공화국력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지식인들

물리학부문의 첫 원사 도상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절세의 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서 지난날 곡절많은 생활의 길을 걸어온 오랜 지식인들도 우리 제도에서 자라난 새 세대 지식인들도 다같이 보람찬 과학탐구의 한길을 걸으며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 값높은 삶을 빛내여올수 있었습니다.》

새 조선의 첫 기슭에서부터 나라의 과학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관록있는 학자들중에는 이름난 물리학자였던 도상록선생도 있다.

조선봉건왕조말엽에 함흥에서 출생한 도상록선생은 간악한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망국노의 설음을 겪으면서 성장하였다.

남달리 영특하여 어려서부터 신동이라고 불리운 도상록선생은 정의감이 강하였고 중학교시절에는 3.1인민봉기에 참가하였다는 리유로 상급학교에 진학할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불타는 향학열을 막을수 없었다.

그는 이역땅에서 고학으로 대학을 다니면서 민족적차별과 멸시속에서도 오직 높은 실력으로 민족적존엄을 지키리라 결심하고 학업에서 특출한 성적을 거두군 하였다.

그후 개성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교원생활을 하면서 그는 물리학과 관련한 론문들도 발표하였으나 그것은 식민지지식인의 설음만을 더해주었다.

나라없던 그 세월 방랑학자가 되여 다른 나라에서 대학교편을 잡고있을 때에도 그는 자기의 재능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써먹지 못하는 통분함을 금할수 없었다. 더우기 해방후 서울에서 교편을 잡고있던 도상록선생은 나라의 물리학발전에 이바지하고싶은 자기의 희망을 도저히 이룰수 없었다.

이러한 그에게 재생의 봄을 안겨주시고 과학자로서의 참된 삶을 빛내여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 선생은 김일성종합대학창립 첫날부터 한생을 후대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바쳐왔다.

선생은 물리수학부 초대학부장, 연구원 원장으로 사업하면서 주체41(1952)년 우리 나라 물리학부문의 첫 원사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 물리학부문 특히 리론물리학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도상록선생은 우리 나라의 첫 원자력부문 과학교육단위의 책임자로서 《핵구조론》, 《량자력학》, 《원자로물리》 등 수십종의 도서들을 집필하였으며 나라의 리론핵물리학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도상록선생은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과학연구활동과 교수사업에 전심하여 수많은 과학일군들과 물리학전문가들을 양성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생전에 그를 여러차례 만나주시고 그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도상록선생이 사망한 후에도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은정깊은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주시였다.

김일성훈장수훈자, 인민과학자이며 물리학부문의 원사였던 도상록선생은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에 의하여 오늘도 영생의 삶을 빛내이고있다.

본사기자 공 로 혁

몇가지 민족음식의 유래

우리 인민들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민족음식들은 맛과 향기, 모양과 색갈이 독특하고 아름다울뿐아니라 그 유래도 깊고 영양가도 높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음식인 전골에는 이런 유래가 있다. 전골이라는 말은 옛날에 싸움마당에서 군사들이 쓰던 전투모인 전립에서 유래되였다고 한다.

어느해 겨울 외적들을 추격하여 후방과 멀리 떨어진 곳에 이른 군사들에게는 도중식사로 가지고 떠났던 얼마간의 찬 음식밖에 없었다. 여기에 가마를 비롯한 조리도구들도 없어 이들은 난감한 처지에 빠지였다.

군사들은 생각던 끝에 자기들의 전투모인 전립에 얼마간의 남은 음식들을 고루 넣어 불우에서 끓이기 시작하였다.

군사들은 구미가 부쩍 동하여 뜨거운것도 마다하지 않고 음식이 익는족족 골라먹었는데 그 맛이 하도 별맛이라 그후에도 이런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먹었다고 한다.

그때로부터 이 음식은 전립의 이름으로 전해져내려오다가 전골로 불리우게 되였다.

전골은 고기, 물고기, 남새, 버섯 등 여러가지 음식감들을 미리 가공하여 전골냄비에 넣고 끓이면서 먹는 음식으로서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아 우리 나라의 명료리로 일러왔다.

민족음식의 하나인 백설기의 유래와 관련하여서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지난날 어린이가 태어나 백날이 되는 날 차리는 상에는 아이가 하얀 백설기와 같이 깨끗하고 건강하게 자랄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백설기를 놓았다고 한다. 이날 상에 올려놓았던 백설기를 이웃들사이에 나누어먹는 풍습은 오늘까지도 전해지고있다. 백설기는 흰쌀가루와 찹쌀가루를 섞은것을 쪄서 만든 시루떡이다.

맛이 좋고 소화흡수도 잘되는 백설기는 입맛이 떨어졌거나 몸이 허약해졌을 때 먹어도 좋다.

예로부터 유명한 약밥에도 다양한 유래들이 있다. 약밥은 찰밥에 대추, 밤, 기름, 꿀, 간장 등을 섞은 다음 쪄서 만든 단음식으로서 약식, 향밥(향기로운 밥), 잡과반(여러가지 과일을 섞은 밥)이라고도 한다. 오래전에 우리 나라에서는 꿀을 약이라고 하였는데 밥에 꿀을 넣었으므로 약밥이라고 불렀다.

옛 기록에는 이웃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약밥을 매우 진귀한 밥이라고 하면서 고려반이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또 우리 나라 사신이 이웃나라에 갔을 때 정월대보름날 료리사에게 약밥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약밥을 먹어보고 대단히 기뻐하였다고 한다. 약밥은 훌륭한 맛과 향기를 내는 음식일뿐아니라 몸보신에 좋은 건강음식이다.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강좌장 신 길 남

상식자료

인체에 좋은 비피두스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려면 건강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장내에는 100여종의 균들이 항상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체내에서의 소화와 흡수, 여러가지 비타민합성, 영양과 발육, 감염방어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 많은 균들가운데서 비피두스균이 인체에 좋은 작용을 한다는것이 밝혀져 연구사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비피두스균은 젖먹이시기에는 많아지다가 어른이 되면서 점차 줄어드는데 자료에 의하면 80~90살이 되는 장수자들의 장내에는 비피두스균이 많은 비률을 차지하고있다고 한다. 암을 비롯하여 난치성질병을 앓고있는 사람들의 장내에는 비피두스균이 퍽 적으며 여러가지 부패성균들이 많다고 한다.

불합리한 식생활(과음, 과식, 편식 등), 항생물질과 화학적합성약품의 람용, 독성물질 등에 의하여 장내세균총이 파괴되면 비피두스균이 적어지고 병원성균들이 많아지게 된다.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들이 증식되면서 장내에서 이상발효 등이 일어나 독성물질이 많이 생겨나면 장성자가중독상태에 빠지게 되며 머리가 어지럽고 입맛이 없으며 소화장애가 온다.

좀더 심해지면 영양장애에 빠지게 된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사람의 건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이 비피두스균을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유지하겠는가를 놓고 많은 연구사업들이 진행되고있다.

연구사들은 인공적으로 배양한 균을 가지고 만든 비피두스균제제품을 먹는 방법으로 균수를 보장해주거나 건강한 사람에게 있던 균을 분리하여 그 제제품을 허약한 사람에게 리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연구를 진행하여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비피두스균을 리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벌어지는 가운데 최근 보건성 만년보건회사에서는 여러 단위의 연구사들과 합심하여 효능높은 비피두스효모가루약을 생산함으로써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약학대학을 졸업한 리동옥연구사와 김현복동무가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개발한 비피두스효모가루약은 만성소대장염을 비롯하여 소화기계통질병치료에 효과가 높다. 특히 젖먹이어린이들에게 이 약을 사용하면 소화불량증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본사기자

철도차량안전감시체계

자료에 의하면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에서 철도의 수송능력이 높아지는데 따라 렬차들의 운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안전감시체계를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일반적으로 철도에서는 렬차운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행도중에 기술역들에서는 객화차들의 모든 부분품들에 대한 기술검사와 보수를 진행하며 중간역들에서는 주요부분품들에 대한 기술검사를 진행한다.

지난 시기 이 나라에서는 주로 검차원들이 수동적인 방법으로 렬차의 안전상태를 검사하였다. 이러한 검사방식에서는 검차원들의 기능수준과 책임성, 건강 및 심리상태, 날씨를 비롯한 주객관적요인들의 영향을 불가피하게 받게 되므로 고장난 부분품들을 제때에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검차원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부분품들을 빠짐없이 검사해야 하므로 로동강도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문제는 렬차들의 운행속도와 운행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였다.

이로부터 이 나라에서는 차량베아링음향진단체계와 화차부분품화상검사체계, 차량운행상태검사체계를 비롯하여 차량검사를 자동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여러가지 검사체계들을 개발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검사체계들을 통합한 철도차량안전감시체계를 개발하여 주요간선들에 받아들이였다.

그후 철도부문적인 범위에서 종합적인 감시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였다.

결과 렬차운행의 안전성이 훨씬 높아져 엄중한 렬차사고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한다. 또한 렬차검사작업효률이 높아져 화차회귀일수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 개발리용하고있는 철도차량안전감시체계는 차량축함온도검사체계와 차량베아링음향진단체계, 차량운행상태검사체계, 화차부분품화상검사체계 등으로 구성되여있는데 이 체계들의 말단검사설비들을 각각 30km, 500km, 400km, 300km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있다.

말단검사설비들은 철도차량자동식별장치, 차바퀴수감장치와 결합하여 사용한다.

본사기자

민족의 자랑 조선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우수한 민족어를 가지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큰 자랑입니다.》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조선민족은 장구한 력사적기간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말과 글을 쓰면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온 단일민족이며 조선어는 오랜 력사적뿌리와 우수한 구조특성을 가진 세상에 자랑할만한 언어이다.

세상에 언어는 많아도 우리 조선어처럼 민족적특성이 강하고 우수한 민족어는 찾아보기 힘들다.

력사에는 자기 민족의 고유한 언어를 잃어버리고 타민족의 언어에 동화됨으로써 그로 하여 민족자체가 사멸된 실례가 적지 않다.

인류문명의 이른 시기에 독자적으로 형성된 조선어는 다른 나라의 언어와는 철저히 구별되는 언어로서 파란만장의 력사속에서도 자기의 본태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이전시기에 존재한 여러 국가들의 언어는 단일하였으며 차이가 있다면 지역적인 방언의 차이뿐이였다.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한 넓은 지역에 존재하였던 고대종족들과 고대 및 중세국가들의 언어와 풍속이 거의나 동일하였으며 그것이 주변나라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는데 대하여서는 여러 력사자료들에 명백하게 서술되여있다.

고대종족들의 언어적동일성은 그를 립증하는 일련의 력사기록외에도 그후에 존재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언어가 같았다는 사실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이것은 조선어의 단일성을 부인하고 우리 민족어의 전일적발전과정을 외곡하려는 주장들이 그릇된것임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조선어는 발음이 풍부하고 말소리울림이 아름다울뿐아니라 표현이 다양하고 문법구조가 째여있다.

우리 말을 가지고서는 세계 어느 나라 말도 자유로이 발음할수 있으며 우리의 말과 글로는 어떤 사상적내용이나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도 《조선의 글자는 세계의 다른 글자들과 비교할수 없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있다.》, 《만일 말과 글로 한 민족의 문화정도를 잰다면 조선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문화의 첫째가는 자리에 설것이다. 조선글자는 배우기가 쉽고 간단하며 표현능력이 강하다.》고 하면서 우리 글자의 우수성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조선어의 우수성과 민족적특성은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아래 더욱더 빛을 뿌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민족어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토록 야만적인 식민지동화책동을 감행하던 일제를 때려부시고 잃을번하였던 우리의 말과 글을 찾아주시였으며 우리 말속에 남아있던 사대주의, 교조주의적잔재들을 말끔히 가셔내고 그것이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화어로 활짝 꽃펴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과 남이 다같이 고유조선말을 기준으로 삼고 언어의 기본대를 세우며 외래어와 한자어를 정리하여 우리 말로 바꾸는 원칙에서 언어를 발전시킨다면 언어의 이질화를 막고 그 순결성을 지켜낼수 있을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과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의 말과 글은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의하여 더욱 세련되고 풍부화되고있다.

우리는 절세의 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아래 찬란히 꽃펴난 우리 민족어의 우수성과 민족성을 더욱 발전시켜나감으로써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연구사 양 영 진

미국식민주주의의 허황성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미지배층은 미국식민주주의가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통용되여야 할 보편성을 가진 민주주의라고 떠들어대고있다. 그리고 그것을 세계제패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미국식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미국식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가장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통치체제이며 침략과 간섭의 도구이다.

미국식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볼수 있는 선거제도를 통해서도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권리가 얼마나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는가를 알수 있다. 미국에서 근로인민대중은 각종 제한조건으로 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하고있다. 선거제한조치는 무려 60여가지에 달한다고 한다. 부르죠아계급의 대변인들로 구성된 국회가 절대로 인민의 대표기관일수 없고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립법활동을 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일이다. 미국에서는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선거전을 벌려 이긴것이 집권하고있다. 그들은 이를 놓고 미국사회가 마치도 《민주주의》적인것처럼 광고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민들을 기만하고 진보적정당들의 진출을 막아버림으로써 저들의 반인민적통치를 무한정 유지공고화하자는데 기본목적이 있다.

미국이 언론의 《자유》, 시위와 집회의 《자유》를 표방하고있는것도 기만이다. 침략전쟁책동을 반대하고 평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한 수많은 사람들이 곤봉세례를 받고 쓰러지고 쇠고랑에 묶여 끌려가고있다.

미국식민주주의하에서는 인간증오사상과 약육강식의 생존원리가 지배하고 극심한 인종멸시, 녀성들에 대한 차별행위, 무시무시한 폭력범죄, 노예적인 인신매매행위, 썩어빠진 깽문화가 횡행하고있으며 인민들이 항시적인 생명의 위협속에서 살아가고있다. 미국집권자들이 떠들고있는 《자유》는 독점자본가들이 근로인민대중을 마음대로 착취할수 있는 자유이며 근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존권과 로동권을 임의의 시각에 삐앗길수 있는 자유이다. 《자유의 녀신상》밑에서 사람들이 갈망하는 진정한 자유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벌어지고있는 사태들을 다 렬거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인권의 불모지, 자유의 폐허지대가 다름아닌 미국이다. 이러한 곳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론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국식민주주의가 보편화된다면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란무하는 무법천지로 되고말것이다.

하다면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 말할 체면도 없는 미국집권자들이 그에 대해 계속 열심히 떠들어대는것은 도대체 무엇때문인가.

미국식민주주의를 국제사회의 《본보기》로 광고함으로써 저들의 패권야망을 실현해보자는것이다.

력대 미국의 집권자들은 그런 기도를 숨기지 않았다. 오바마는 《우리는 미국의 강대한 지도력이 세계를 뒤덮는것을 보게 될것이다.》고 줴쳤다. 군사적힘과 《원조》 등으로 미국식민주주의를 강제이식시켜 다른 나라들을 손쉽게 지배와 예속의 손아귀에 틀어쥐자는것이다.

참다운 민주주의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준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이다. 해당 나라의 정치에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이 반영되고 그것이 인민대중자신에 의하여 실현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말할수 있다.

미국식민주주의는 그 어느 나라에도 맞지 않으며 해독적후과만 빚어낸다. 사람의 자주적본성에 전적으로 배치되기때문이다. 얼마나 반동적인가 하는것은 그것을 받아들인 나라들의 실태가 잘 말해주고있다.

20세기 90년대에 아프리카나라들은 서방의 압력에 못이겨 할수없이 미국식, 서방식민주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원래 대다수 아프리카나라들의 국경은 서방의 식민주의자들이 강제로 정한것이며 령토안에는 각이한 종족, 부족들이 있다. 서방의 선거제도는 종족, 부족이 많고 자기 종족, 부족에 대한 관념이 매우 강한 아프리카나라들에 맞을리 만무하다.

다당제가 실시됨에 따라 많은 정당들이 출현하였다. 대통령 및 국회선거에서 선거자들은 오직 자기 종족의 후보에게만 투표하고 일단 자기 종족의 정당이 선거에서 실패하면 이에 불만을 품고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군사정변과 정권교체가 빈번히 일어나고 사회적무질서, 혼란이 조성되였으며 내란이 터졌다.

분석가들은 아프리카나라들에서 선거가 진행되면 임의의 시각에 동란이 일어날수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부득불 아프리카사람들로 하여금 서방식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참다운 민주주의인가 그리고 그것이 아프리카대륙의 실정에 맞는가 하는데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게 한다고 평하였다.

미국은 친미분자들을 《민주주의투사》로 취올린다. 미국 등 서방을 반대하면 독재자, 테로조직으로 규정되고 서방의 타격대상으로 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세계에 자주 펼쳐보이는 황당무계한 《민주주의수호》의 진면모이다.

미국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정부에 《자유》를 억압한다는 감투를 씌워놓고 반정부세력들을 비호두둔하면서 내부교란을 일삼고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이러한 이중기준과 모략책동으로 하여 적지 않은 나라들이 이미 큰 랑패를 보았으며 엄중한 피해를 입고있다.

미국은 또한 저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이지 않거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무력간섭을 들이대고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침략은 세계최대의 국가테로, 인권유린자로서의 미국의 횡포성과 야만성을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여주었다.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가 도래》하였다고 하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테로의 서식장, 란무장으로 변하였고 이 나라 인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다. 이처럼 미국식민주주의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아무런 인연도 없다.

현실은 미국식민주주의가 다른 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을뿐아니라 또 맞을수도 없다는것, 매개 나라는 그 누구의 본을 딸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구체적환경과 실정에 맞는 정치방식을 선택하고 자주적인 길로 나가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미국이 떠들어대는 《민주주의》타령의 반동성과 위험성을 똑바로 보고 그것을 각성있게 대하여야 할것이다.

리 현 도

궁지에 빠진 섬나라족속들의 못난이짓

심각한 정치적위기에 빠진데다가 조선반도를 둘러싼 외교흐름에서 밀려나 앙앙불락하는 일본반동들이 갈수록 못되게 놀아대고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높이 올린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선언에 제일 질겁한것이 바로 일본반동들이다. 급해맞은 아베와 재무상, 방위상, 외상을 비롯한 섬나라패거리들은 저마다 나서서 《핵과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미싸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페기》니,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고 핵, 미싸일포기를 목표로 하는 자세의 변함없는 견지》니 하고 미친듯이 고아대고있다.

아베는 얼마전의 미국행각시에도 상전에게 매달려 핵문제와 함께 《랍치》문제까지 내들며 대조선제재압박을 구걸하였다. 일본방위상 역시 미국방장관에게 수리아에 대한 공습이 그 누구에게 보내는 《특별메쎄지》라고 역겹게 알랑거리면서 국제공조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싸일계획을 포기》하게 해야 한다고 지껄여댔다.

일본반동들이 제 눈섭에 불붙은것처럼 허둥지둥하면서 우리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이니, 《핵, 미싸일포기》니 하고 곱씹으며 돌아치는 꼴은 참으로 보기 민망스러울 지경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가 선언되고 새로운 전략적로선이 제시된것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게 된 기초우에서 인류의 공통된 념원과 지향에 부합되게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우리의 평화애호적립장의 뚜렷한 발현이다. 우리 당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선언과 새로운 전략적로선의 제시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힘있게 떠밀어주는것으로 하여 내외의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다.

그런데 유독 일본반동들만이 교약한 속통을 버리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대결책동에 계속 매달리면서 세인의 조소와 규탄을 받고있다.

조선반도의 정세흐름이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으로 긴장완화에로 지향되자 순간에 뒤용박 쓰고 삼발에 들어간 여우신세가 된 일본반동들은 지금 속을 바질바질 끓이면서 어떻게 하나 판을 뒤집으려고 악을 쓰고있다.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을 계속 강화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나 해치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골수에 배긴 흉심이다.

비극은 아베패당의 망동이 국제정치무대에서 저들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결과만을 빚어내고있는데 있다. 그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것이 아닐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여 가련한 섬나라족속들의 추태는 대세의 흐름에서 밀려나 외토리신세가 된데 대한 히스테리적발광이다.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은 저들의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야망이 물거품으로 되고있는데 대한 극도의 불안초조감의 발로이기도 하다.

그 누구의 《위협》과 조선반도의 긴장격화를 구실로 헌법개악과 해외침략 등 뿌리깊은 야망을 실현하려던 일본반동들은 대화와 평화에로 지향되고있는 조선반도의 현정세흐름으로 하여 닭쫓던 개 울바자 쳐다보는 격이 되고말았다.

악에 받친 아베패당은 말그대로 미칠 지경이다. 앞뒤로 숨통이 막히게 된 일본반동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흐름을 가로막고 대결국면을 계속 조성하여 군국주의마차가 거침없이 질주할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이처럼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는것이다.

세상 모르고 약은것은 세상 넓은 못난이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다.

일본은 지금과 같이 달라진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것이 현명한것인가에 대해 그 약삭바른 머리로 잘 타산해보고 진중하게 행동하는것이 좋다. 지금처럼 밉살스럽게 놀아대다가는 평양으로 통하는 길에 스스로 더 높은 장벽을 쌓고 개밥에 도토리신세가 되여 세상으로부터 더 고립되고 배척당하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허 영 민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마련하시여》

민주꽁고단체 인터네트에 글 게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신 25돐에 즈음하여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8일 인터네트홈페지에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마련하시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1993년 4월 6일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시였다고 하면서 그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북과 남사이에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삼천리강토가 통일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진 6.15통일시대가 펼쳐진것은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인민이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모든 문제를 조선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나갈 때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야말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결정들을 지지한다

로씨야단체들 강조, 아프리카지역기구 성명 발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들을 지지하여 로씨야단체들이 23일과 24일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로스또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채택된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결정들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한 기초우에서 취한 조선의 평화애호적립장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로씨야지역사회조직 《보로지노》는 전원회의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이 제시된데 대해 지적하고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성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그루빠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들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리라고 확신하고있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추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우리는 전원회의결정들이 근로하는 조선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게 될것이라고 믿는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이다.

*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들을 지지하여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가 24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는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였다.

조선은 5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적대세력들의 전례없는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력사적사변들을 련발적으로 터쳐 국제정치구도에서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사회주의조선이 기울인 노력의 결과이다.

아프리카인민들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련계와 대화를 적극화해나가려는 조선의 모든 노력들을 전적으로 지지하고있다.

조선의 평화애호적립장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환영을 받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조선중앙통신】

긴장완화에 역행하는 위험한 움직임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얼마전 미국이 남조선에 거주하고있는 자국민간인들을 본토까지 소개시키는 훈련을 벌려놓은것은 그러한 책동의 일환이다. 미군부가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여러날에 걸쳐 이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벌려놓으면서 분주탕을 피운것은 결코 례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미국의 민간인소개훈련은 매우 도발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미국이 무력을 동원하여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키기에 앞서 《비전투원후송》이라는 명목으로 사전에 자국민간인들을 빼돌리는 놀음을 벌려놓군 하였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다시말하여 미국의 민간인소개놀음은 전쟁전야에만 볼수 있는 위험한 움직임이다.

하기에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언제나 세계 각국의 경계심과 우려를 자아냈으며 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인민들도 미국이 감행하는 민간인소개훈련을 위험한 침략전쟁도발기도의 발로로 단죄하면서 그것을 반대하여 투쟁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저들의 호전적망동을 허무니없이 우리를 걸고 정당화하면서 지난 시기와는 달리 이 훈련을 공개적으로 벌리였다. 미국은 이번 훈련전부터 언론을 통해 유사시 자국민간인들을 남조선에서 탈출시키는 《비전투원후송》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할것이라고 광고하였다. 그러면서 훈련이 조선반도에서 《최악의 씨나리오가 전개될 경우에 대비한 대규모철수훈련》이라는것과 특히 미국본토까지 민간인들을 철수시키는것은 사상 처음이라는데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었다.

그에 이어 감행된 이번 민간인소개훈련은 우리와의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강행한 로골적인 적대행위로서 북침전쟁도발의 전주곡이며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역행하는 위험천만한 움직임이다. 미국은 내외의 한결같은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민간인소개훈련을 벌려놓음으로써 대화와 평화의 흐름을 가로막고 조선반도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피려는 흉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금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북남사이에 화해와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가 마련되고 한층 승화되여가고있으며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에서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미국이 민간인소개훈련을 벌리면서 전쟁기운을 고취하는것은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뿌리고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훼방을 놓는 실로 고약하기 짝이 없는 망동이다.

민간인소개훈련뿐이 아니다. 최근 미국은 대화와 평화를 위한 우리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도전해나서면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의 현정세국면에도 불구하고 대조선제재압박은 유지되여야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최대의 압박》에 지속적으로 매여달릴 계책을 드러내고있는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이런 속에 미국이 우리와의 전쟁을 기정사실화하며 민간인소개훈련을 공개적으로 감행한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바라는 내외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보다싶이 미국은 대화와 평화가 아니라 대결과 전쟁을 기도하고있다. 현실은 미국이 북남관계의 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에는 관심도 없으며 오직 우리를 무력으로 해칠 기회만 노리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이 긴장완화와 평화에 대한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으며 그와 배치되는 도발적망동에 매달릴수록 평화파괴자, 전쟁광신자로서의 저들의 추악한 정체만을 더욱 드러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박 철 준

이란 미국의 핵합의탈퇴시도를 비난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24일 핵합의에서 탈퇴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비난하였다.

이란정부와 인민은 적들의 음모책동에 맞설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있으며 미국은 핵합의탈퇴로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그 누구도 이란인민을 실망시키고 그들에게서 앞날에 대한 희망을 빼앗을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이란국가최고안전리사회 서기장은 핵합의가 파기되면 이란정부는 과격적인 조치들을 취할것이며 그중 하나로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할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미군기지이설반대시위 계속

일본의 오끼나와현에서 헤노꼬에로의 미군기지이설을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있다.

25일 약 600명의 군중이 미군의 캠프 슈와브기지앞에서 롱성투쟁을 전개하고 헤노꼬의 미군기지건설장주변수역에 나무배들을 띄워놓고 항의시위를 벌렸다. 시위자들은 《미군은 오끼나와에서 나가라》고 쓴 프랑카드를 들고 기지건설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23일에도 미군기지앞에서 수백명의 각계층 군중이 롱성투쟁으로 건설자재수송을 막아나섰으며 기지건설을 중지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 벌려나갈 립장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외교부 대변인 미국의 억지주장 배격

중국외교부 대변인 룩강이 25일 기자회견에서 홍콩주재 미국총령사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규칙을 위반하면서 미국의 리익을 훼손시키고있다고 한데 대해 배격하였다.

그는 세계무역기구성원국이 규칙을 준수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문제는 기구틀거리안에서 론할 문제이지 어떤 성원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것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그는 경제 및 무역분야에서의 의견상이를 해결하는데서 제 말만 말이라는 식의 일방적인 해결이란 있을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체육발전노력

케니아에서 정구를 대중체육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에 각계층 주민들이 정구를 할수 있는 훈련쎈터를 건설할것을 계획하고 여기에 국가적투자를 강화할것이라고 한다.

25일 이 나라 대통령 우후루 케니아타는 이에 대해 밝히면서 정구를 누구나 할수 있는 대중체육종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문제를 해결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 나토의 확대를 반대

로씨야련방평의회 의장 왈렌찌나 마뜨비옌꼬가 24일 기자회견에서 나토의 확대를 반대배격하였다.

그는 유럽에서 나토가 확대되고 유럽나라들이 군사화되는것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분할선을 만드는것은 유럽의 안전을 악화시킬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로씨야는 유럽에 하나의 정치적 및 경제적공간, 안전공간을 창설할것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나라들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진짜 인권유린국은 미국이라고 규탄

베네수엘라외무상 호르헤 알베르또 아레아싸 몬쎄라뜨가 최근 미국이 발표한 《인권보고서》를 배격하였다.

미국무성이 《2017년 나라별인권보고서》에서 베네수엘라의 인권상황을 비난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인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단지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적인 선전공세로 그 나라들의 영상을 훼손시키고 저들의 정권교체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에 대해 시비할 도덕적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그는 미국이야말로 진짜 인권유린국이라고 규탄하였다.

우리의 국권, 인권을 유린해온 만고죄악

조선전쟁은 미제가 일으킨 침략전쟁

《실제에 있어서 월가의 조선인민에 대한 전쟁은 그 장군들이 남조선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1945년 9월에 시작되였다.》

이것은 일본의 한 도서에 씌여져있는 자료이다.

도서가 말해주듯이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직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를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극동침략의 중요한 전략적기지로 간주한 미제는 남조선강점 첫날부터 전조선을 집어삼키려고 38°선에 진지를 구축하고 곳곳에서 군사도로, 비행장, 군항건설을 다그쳤다. 이와 함께 남조선의 청장년들로 《국군》을 조직하여 값눅은 전쟁대포밥을 마련하기 위해 미쳐날뛰였다.

남조선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갖추어놓은 미제는 《북벌》을 당면과제로 내세우고 맥아더사령부 《G-2》소속 전 일본군 고급장교들로 무어진 《KATO》기관과 《G-3》의 《력사반》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트와 남조선군부 우두머리들을 포함시켜 전쟁도발계획작성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여기에서 조선과 만주, 씨비리를 점령할것을 예견한 《A, B, C계획》이 연구작성되였으며 특히 《A계획》과 관련한 《북벌》군사행동계획은 미합동참모본부에서 여러차례 검토되였다.

1945년에 미군군사지도인쇄소에서 발행된 조선지도에 그려진 《북벌》군사행동계획은 1950년 6월 조선인민군이 서울을 해방할 때 남조선륙군본부에서 압수되여 공개되였다. 그에 의하면 기본전선인 38°선에서의 정면돌파와 배합하여 공군의 엄호밑에 조선서해안의 한천(평안남도 평원군 화진리)과 조선동해안의 하남리(함경남도 정평군)로 륙전대를 상륙시키도록 되여있었다. 계획도에는 륙전대가 38°선을 돌파한 주력부대들과의 협동작전으로 북반부의 허리를 자르고 일거에 평양, 원산계선을 점령한 다음 압록강, 두만강계선으로 공격성과를 확대할 기도가 반영되여있었다.

미제는 전쟁도발계획을 세운데 기초하여 남조선군을 사촉하여 38°선일대에서 우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빈번히 감행하였다. 그때마다 우리의 자위적반격에 부딪쳐 실패를 거듭하였다.

이렇게 되자 로버트는 남조선군으로는 《북벌》을 실현할수 없다고 단정하고 그 실태에 대해 미국방성에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미제우두머리들은 본래의 전쟁도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일부를 수정하였다.

수정된 전쟁도발계획에는 조선전쟁을 1950년 여름경으로 미루며 그때까지 미국본토와 일본, 주요하게는 남조선에서 전쟁준비를 철저히 갖추는것이 반영되여있었다.

미제가 전쟁을 미루게 된것은 침략야망에 비하여 전쟁준비가 원만히 갖추어지지 않았기때문이였다. 남조선에서 《후방안전》이 보장되지 못한것, 채 종결짓지 못한 일본에서의 전쟁준비상태 등을 해결하자면 결정적으로 시간이 필요하였으므로 전쟁도발시기를 미루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또한 수정된 계획에는 남조선군만으로 《북벌》을 실시하려던 본래계획을 변경하여 처음부터 미군을 전면개입시키며 이 계획을 미국무성의 외교적모략으로 뒤받침하는것이 들어있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저들이 전쟁을 도발한 즉시로 《북조선군이 무장공격》을 했다는 날조된 여론을 세계에 퍼뜨리는것과 함께 국무성이 이 문제를 유엔에 《제소》하고 《유엔군》을 조직함으로써 유엔의 간판밑에 조선에서의 미제침략군의 군사작전을 합법화하는것을 주되는 내용으로 하고있었다.

이를 위해 미제와 남조선당국은 전쟁전야에 주말휴식, 려행, 만찬회 등의 명목으로 고위급인물들이 부산스레 움직이는 연극을 꾸미였다.

조선전쟁을 위한 미제의 침략계획과 준비는 미국의 전쟁력사에서 류례없이 면밀하게 작성되고 실행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한 잡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우리 력사의 전기간을 통해서 이 전쟁이 시작될 때처럼 그러한 정도로 준비되여있은 례를 찾아볼수 없다.》

이렇듯 침략전쟁을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춘 미제는 남조선군을 사촉하여 1950년 6월 25일 새벽 불의에 전쟁을 개시하였다.

그날은 일요일이였다. 일요일을 전쟁개시의 날로 정한데도 역시 미제의 음흉한 기도가 숨어있었다.

이에 대해 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트는 25일은 일요일이다, 그리스도교국가인 미국이나 남조선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있으므로 일요일에 전쟁을 개시했다는것을 믿을 사람은 아마도 없을것이다. 다시말하여 미국이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았다는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뇌까렸다.

이렇듯 조선전쟁은 전쟁시간표에 이르기까지 미제에 의해 세밀히 계획되고 면밀하게 준비된 침략전쟁이였다.

본사기자 림 원

여러 나라에서 자연재해

무더기비피해

탄자니아의 다르 에스 살람에서 최근 무더기비피해를 입고있다.

여러날째 계속된 무더기비로 16일현재 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하부구조들이 파괴되고 학교들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현지에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있다.

강 풍

오스트랄리아의 태즈메이니어섬 북부지역에 16일 강풍이 들이닥쳤다.

강풍으로 많은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워 넘어지면서 전기선들을 끊어놓아 약 3 000세대의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등 혼란이 조성되였다.

지 진

- 이란의 부쉐르주에서 19일 리히터척도로 5.9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북위 28.353°, 동경 51.559° 되는 곳에 있었다.

- 일본의 지바현에서 21일 리히터척도로 5.1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진앙은 북위 35.6°, 동경 131.2° 되는 곳에 있었다.

가 물 피 해

스리랑카에서 최근 가물피해를 입고있다.

19일 이 나라의 재해관리쎈터가 밝힌데 의하면 지속되는 가물에 의해 북부주, 서북부주, 동부주의 10개 지역에서 50만명이상의 주민들이 먹는물과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겪고있다고 한다.

폭 풍 피 해

인디아의 서부벵갈주에서 18일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다.

폭풍으로 주소재지 콜카타시와 그 주변지역들에서 8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주민들이 부상당하였다.

또한 도로옆에 있던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우고 전주대들이 넘어져 전력공급이 중지되였으며 교통이 마비되였다.

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있다.

태 풍 피 해

로씨야의 중앙련방구에서 21일 태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다.

모스크바시와 모스크바주, 브란스크주, 랴잔주에서 태풍으로 2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부상당하였다.

모스크바시에서만도 약 600그루의 나무들이 넘어지고 30채이상의 건물과 92대의 자동차들이 파손되였으며 모스크바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공급이 중단되였다.

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81068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